차 례

Contents

이슈와 진단 02

중국 동북3성 경제·산업 현황분석 및 시사점

중국 지방정부 주요 정책 및 교류 동향 15

▶ 지린성 일반 현황 및 대외무역 현황 16

▶ 지린성의 주요 대외정책 및 동향 23

▶ 지린성의 수출입상품 시장 동향 26

▶ 2018 지린성 주요 국제교류 활동 30

현대중국의 이해 34

마오쩌둥 말년의 생활

충남 속의 중국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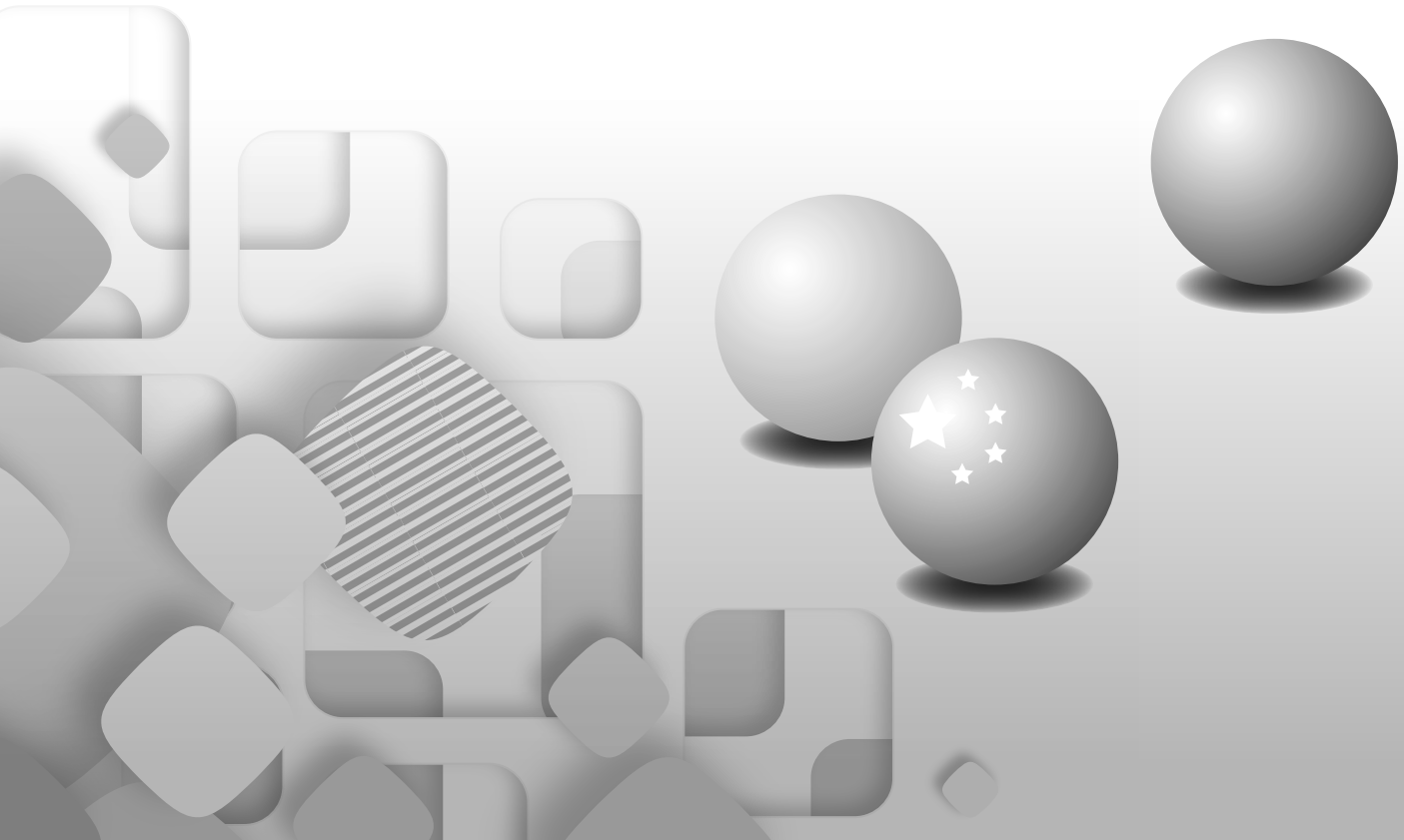
청나라와 일본 간 최초의 격전, 천안 성환전투(成歡戰鬪)

발간목록 58

이슈와 진단

중국 동북3성 경제·산업 현황분석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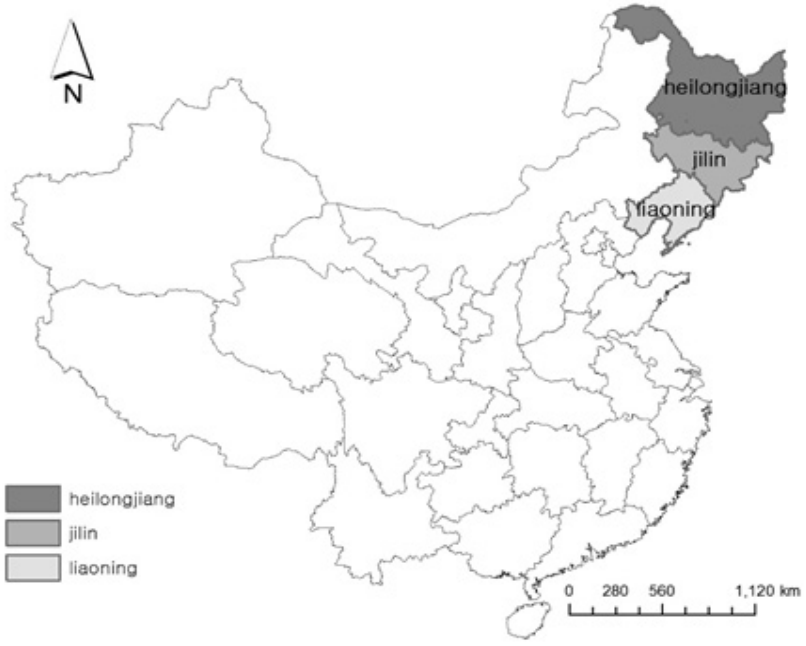
송영현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책임연구원



최근 국내외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국 일대일로에 관한 논의가 심화됨에 따라 동북아 국가 간 경제협력에 있어 중국 동북3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충남 역시 동북 3성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 호 이슈와 진단에서는 중국 동북3성의 경제산업 현황, 한국-동북3성 간 경제협력 현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충남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도록 한다.

Ⅰ. 동북3성 위치 및 경제·산업 개황

● 동북3성은 중국에 동북부에 위치한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3개 성(省)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 지역은 과거 국유기업 중심의 중공업 발전전략을 펼쳐왔으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산업 구조조정의 한계, 관료주의의 폐해 등 이유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었다.



<그림 1> 중국 동북3성 위치

1970년대 후반부터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까지 지속되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 국가 차원에서 지역 재건을 위한 동북진흥 정책을 펼쳤으며, 이 정책은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되어 오고 있다.
2000년대 경제상황이 상당히 호전되었으나 2010년대 초반 이후 다시 하락세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률 하락이 가팔라지고 경제의 불안정성이 올라감을 의미하는'신(新)동북현상'이란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 2017년 연말 상주인구수를 기준으로 중국 전체 인구의 약 7.8%(1억 875만 명)가 동북3성에 살고 있으며 도시화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61.2%이다.
도시화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2000년대 들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인구문제가 심각하다. 2017년 동북3성에서 외부로 유출된 인구가 35만 명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 중국 경제에서 동북3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전국대비 GRDP 규모는 6.6%에 불과하며 1인당 GRDP 역시 전국 평균에 비해 약 16% 낮다. 전년대비 GRDP 성장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1.6% 낮은 5.3%이다.
대외 수출입액 규모도 중국 전체 대비 5% 미만이며 1인당 가처분 소득 역시 전국 평균에 비해 약 10%가 적다. 단 소비규모는 작지 않은 편이다. 지역과 인구규모에 비해 사회소비품 판매총액, 1인당 소비지출액이 많은 편이다.

<표 1> 동북3성 경제현황(2017년)

구분	동북3성	전국	동북3성/전국(%)
GRDP(억 위안)	54256	818461	6.6
1인당 GRDP(위안)	49891	59201	84.3
전년대비 GRDP 성장률(%)	5.3	6.9	76.8
연말 상주인구(만 명)	10875	139008	7.8
도시화율(%)	61.18	58.52	104.5
1인당 가처분 소득(위안)	23470	25974	90.4
1인당 소비지출(위안)	21012	18322	114.7
사회소비품 판매총액(억 위안)	30762	366262	8.4
수출액(미화 억달러)	545	22634	2.4
수입액(미화 억달러)	825	18438	4.5

자료: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

● 동북3성의 산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동북3성은 2,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력산업은 자동차 제조, 금속가공 및 제련, 석유가공, 농식품 가공, 화학원료·화학제품 제조업이다.

오랜 기간 중국의 대표적인 중화학 공업기지이자 식량 생산기지로 기능하였던 만큼 관련 산업이 발달하였다. 단 첨단기술, 중고위 기술산업의 비중 및 산업고도화 수준은 낮은 편이다.

● 한편, 동북3성은 13·5규획 기간(2016-20년) 동안 제조업 업그레이드, 전통 우위산업의 과잉생산 통제 및 고부가가치화, 전략적 신흥사업 육성, 현대 서비스업 육성을 목표로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조업의 기술수준 향상, 국유기업이 중심이 된 전통 우위산업의 공급측 개혁, IT, 신에너지차 등 신흥산업 육성, 생산자·소비자 서비스업의 고도화 등이 핵심내용이다.

<표 2> 동북3성 산업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구분	동북3성/전국(%)
산업비중 (1:2:3차, %, 17년)	11.0 : 37.3 : 51.7
주력산업	- 자동차 제조, 금속가공 및 제련, 석유가공, 농식품 가공, 화학원료·화학제품 제조 등 ※현재 동북3성의 첨단기술, 중고위 기술산업 비중 및 산업고도화 수준 낮은 편
산업정책 동향 (13·5규획기간(16-20))	**① 제조업 업그레이드** - 첨단장비제조업 적극 발전 - 〈중국제조 2025〉를 통해 동북 장비경쟁력 강화 - 정보화·공업화 융합 추진, 신형공업화시범기지 건설 - 군수융합산업 발전 추진, 군수융합 혁신시범구 건설 **② 전통 우위산업** - 철강, 석탄 등 과잉생산통제 - 정밀가공 수준 향상(공정플라스틱, 화학공업신소재) - 비교우위 자원 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 동북지역을 국가 신형 소재기지로 육성 **③ 전략적 신흥사업** -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IT, 신에너지차, 첨단장비 및 소재, 환경보호) - 선양, 하얼빈 선도적 역할을 하는 신흥산업혁신발전기지 건설 - 농산물 정밀가공을 통하여 관련 특색산업 클러스터 조성 - 인터넷+촉진(전자상거래, 인터넷의료, 인터넷교육) **④ 현대 서비스업** - 생산자 서비스업 : 현대물류업, 물류정보플랫폼·표준화체계 개선 - 소비자 서비스업 : 관광, 문화, 체육, 보건, 양로 소비 구조 개선
산업정책 동향 (13·5규획기간(16-20))	- 관광 인프라를 통한 생태, 공업, 변경, 문화 발전 - 제조업 서비스화 추진(제품연구개발, 첨단서비스, 품질진단 등 온라인 부가가치서비스 발전 지원 - 생산제조→생산서비스형으로 전환 - 선양·창춘·하얼빈 서비스·제조업 심층융합 시범 기지 건설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성별·연도별 데이터(國家統計局分省年度數據)·2018년 각성별 정부업무보고 자료 ·김수한·전유정(2018; 30) 재인용
주. 주력산업의 경우 2016년 자료를 활용

Ⅱ. 성별 경제·산업 현황 및 특징

● 각 성별 경제현황을 살펴보면, 랴오닝이 지린, 헤이룽장에 비해 전반적인 경제역량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랴오닝의 GRDP 총량이 지린과 헤이룽장에 비해 높은 편이다. 1인당 가처분소득, 사회소비품 판매총액 등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 전반적으로 볼 때, 랴오닝의 경제가 다른 두 성에 비해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성별 1인당 GRDP 규모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지린과 헤이룽장의 전년대비 GRDP 성장률이 랴오닝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한편, 수출입 규모를 통해 랴오닝이 다른 두 성에 비해 대외개방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3> 성별 경제현황(2017년)

구분	동북3성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GRDP(억 위안)	54256	23409	14945	15902
1인당 GRDP(위안)	49891	53527	54838	41916
전년대비 GRDP 성장률(%)	5.3	4.2	5.3	6.4
연말 상주인구(만 명)	10875	4369	2717	3789
도시화율(%)	61.18	67.49	56.65	59.40
1인당 가처분 소득(위안)	23470	27835	21368	21205
1인당 소비지출(위안)	21012	20463	21368	21205
사회소비품 판매총액(억 위안)	30762	13807	7856	9099
수출액(미화 억달러)	545	449	44	52
수입액(미화 억달러)	825	547	141	137

자료:중국 국가통계국 성별·연도별 데이터(國家統計局分省年度數據)

● 성별 산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3성 모두 전반적으로 2,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랴오닝은 3차, 지린은 2차, 헤이룽장은 1,3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더 발전하였다.

● 랴오닝은 자동차 제조, 석유 및 금속가공, 농식품 가공업, 지린은 자동차 제조, 농식품 가공, 의약업, 헤이룽장은 농식품 가공, 석유가공,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주력산업으로 꼽을 수 있다.
주력산업이 대부분 2차 산업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고도화 수준은 낮은 편이다. 성별 주력산업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각 성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정책과도 연계된다.

● 랴오닝은 첨단제조업 중점 육성, 농산품 가공업 발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린은 자동차 산업 확대 및 신에너지 자동차 개발, 두만강 유역 경제벨트 조성을, 헤이룽장은 국제 물류망 연결, 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산업 개발, 식품 및 농산품 가공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각 성들은 기술집약적 신산업 발전, 국제물류망 연결, 농산품 가공업 발전을 추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3성 모두 기존 주력산업 분야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경제쇠퇴가 나타난 지역인만큼,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3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발전한 랴오닝의 경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4> 성별 산업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구분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산업비중 (1:2:3차, %, 17년)	8.1 : 39.3 : 52.6	7.3 : 46.8 : 45.9	18.7 : 25.5 : 55.8
주력산업	자동차 제조, 석유가공, 금속가공 및 제련, 농식품 가공, 화학원료·화학제품 제조 등	자동차제조, 농식품 가공, 의약, 비금속 광물제품, 화학원료·화학제품 제조 등	농식품 가공, 석유가공, 화학원료·화학제품 제조 등
산업정책 동향	- 첨단장비제조업 중점 육성하고 군민 융합산업 발전 추진 - 농산품 가공업 발전도모 하고 관광, 문화, 건강과 융합된 농업 발전 추진 - 다롄, 선양 중심의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육성 - 철강, 석유화학, 금속업 등 전통산업의 구조전환 추진	- 자동차 산업 확대 및 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 자동차 생산 지원 - 두만강 유역 경제벨트(창춘-지린-투먼)전략 심화 추진 및 변경 무역 강화 - AI, 녹색제조, 서비스제조 발전 추진	- 국제 무역항로·물류망 연결하여 대외개방 수준과 지역경쟁력 제고 - 산업 구조조정과 인터넷, 빅데이터, AI 등 신산업 개발 추진 - 식품, 농산품 가공업을 주산업으로 육성하고 옥수수 연료 프로젝트 추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성별·연도별 데이터(國家統計局分省年度數據)·2018년 각성별 정부업무보고·HKTDC(2018a; 2018b; 2018c)
주. 주력산업의 경우 2016년 자료를 활용

● 한편, 동북3성의 경제산업발전을 주도해왔거나 향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들이 있다. 랴오닝의 선양, 다롄, 단둥, 지린의 창춘, 옌볜, 헤이룽장의 하얼빈과 같은 도시들이다.

션양, 창춘, 하얼빈은 각각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의 수도이다. 단둥, 옌볜의 경우 북한 접경 도시로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남·북·중 협력의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중국 동북3성 주요도시 위치

● GRDP, 1인당 GRDP, 사회소비품 판매총액 등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선양과 창춘, 하얼빈 등 각 성 수도들의 경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무역이 활발하고 제조업이 발달한 다롄 역시 위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다.
단둥, 옌볜의 경우 경제규모가 작은 편이다. 단, 대 북한 무역에 있어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 단둥의 경우 중국-북한, 랴오닝-북한간 무역의 창구 지역이며, 옌볜의 경우 포스코현대 국제물류단지 등 한국기업이 입지한 곳이다. 옌볜은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시 북한의 나진항을 주요 물류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표 5> 주요 도시 경제현황(2017년)

구분		인구(만명)	GRDP (억 위안)	1인당 GRDP (위안)	사회소비품 판매총액 (억 위안)	수출액 (억 위안)	수입액 (억 위안)
랴오닝	선양(沈阳)	829	5865	70722	3990	318	550
	다롄(大连)	595	7364	105387	3723	1746	2386
	단둥(丹东)	235	793	33111	572	91	70
지린	창춘(长春)	749	6530	86931	2923	130	823
	옌볜(延边)	210	928	43943	560	65	78
헤이룽장	하얼빈(哈尔滨)	955	6355	66301	4045	98	129

자료:각 성별 2017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공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 동북3성의 주요도시들은 자동차, 장비제조 및 부품, 석유화학 관련업을 주력산업으로 삼고 있다. 각 도시별로 특화된 산업으로는 선양의 현대서비스업, 창춘과 하얼빈의 바이오 의약업 등이 있다.

● 도시별 특성을 반영한 산업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선양과 랴오닝은 국가급 자유무역시범구, 연해경제벨트를 조성하며 대외경제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얼빈의 경우 중·몽·러 경제회랑의 거점 지역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단둥과 옌볜의 경우 북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표 6> 주요 도시 산업현황

구분		주요산업	산업정책 동향
랴오닝	선양(沈阳)	- 장비제조, 자동차 제조 및 부품업, 항공장비업 - 금융, 과학기술, 물류 등 현대 서비스업 등	- 선양경제구 국가신형공업화종합개혁 시범구 지정(2010년) - 중국·독일 첨단장비제조산업단지 조성(2016년) - 랴오닝자유무역시험구 지정(선양·다롄·잉커우) 지정(2016년) - 국가중심도시 및 국가 선도 제조업 기지
	다롄(大连)	- 항만물류, 선진장비제조, 금융 및 운수서비스업 - 자동차, 선박, 해양플랜트 장비 제조업 - 소프트웨어 중심의 하이테크 산업 등	- 랴오닝연해경제벨트 조성(2009년) - 다롄 진푸신구(金普新区) 지정(동북 지역 최초 국가급 신구)(2014년) - 랴오닝자유무역시험구(선양·다롄·잉커우) 지정(2016년)
	단둥(丹东)	- 자동차제어 시스템·설비업 - 전문용도의 계기, 전자 검측계기제조업 등	-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조성계획 발표(2009년) - 단둥하이테크산업개발구 조성(2012년) - 변경시범구(1992년 지정)인 단둥을 중국-북한, 랴오닝-북한간 무역 창구로 장기적으로 활용할 계획
지린	창춘(长春)	- 자동차, 화학, 정보통신, 바이오 의약업 등	-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창춘-지린-투먼)(2009년) - 창춘신구 지정(2016년) - 자동차 및 기차생산의 본거지 역할 공고화 노력 중
	옌볜(延边)	- 광산, 장비 제조업, 의약, 목재품 가공업, 섬유업 등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출범 (2005년) -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창춘-지린-투먼)(2009년) - 훈춘국제합작시범구(2012년) - 훈춘포스코현대국제물류단지 건설(2012년)
헤이룽장	하얼빈(哈尔滨)	- 석유화학, 기계·전력·항구 설비, 바이오 의약업 등	- 하얼빈신구 지정 (2015년) - 중·몽·러 경제회랑 헤이룽장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조성계획 발표(2015년) - 서비스무역혁신시범도시 지정(동북지역 유일)(2016년)

자료: 김수한·전유정(2018)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

Ⅲ. 한국-동북3성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 한국의 대 동북3성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대 동북3성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3.3%, 수출액 기준)이 상당히 작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출의 대부분이 랴오닝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년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지린, 헤이룽장으로의 수출도 늘고 있긴 하나 아직 그 규모가 미미한 편이다.

<표 7> 한국의 대 동북3성 수출현황(2017년)

구분	동북3성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중국	동북3성/전국(%)
수출액(미화 백만달러)	5820	5361	397	62	177269	3.3
전년대비 증감(%)	12.4	11.6	23.1	18.9	11.7	-

자료: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stat/)

● 한국의 대 동북3성 수출을 업종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 동북3성 수출액의 90%을 차지하고 있는 랴오닝의 경우 환식탄화수소, 차량용품, 철·비합금강 관련 제품 등 화학, 차량·장비제조업품의 수출이 주를 이루었다.

지린의 경우 철·비합금강 관련제품의 수출이 주를 이루었으며, 헤이룽장의 경우 차량용 부품, 파이프·보일러 동체, 석유 관련 제품의 수출이 주를 이루었다.

앞서 살펴본 각 성별 주력산업과 관련이 높은 제품의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8> 한국의 대 동북3성 주요 수출업종 및 금액(2017년)

구분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업종 및 수출액 (미화 백만달러)	- 환식탄화수소(3491) -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137) -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75) - 절연전선·광섬유 케이블(67) - 전동축·크랭크·베어링 등(60)	-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클래드, 도금)(46) -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냉간압연)(35) - 에틸렌 중합체(27) - 전기제어용·배전용 보드 등 (21) -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 (13)	-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12) - 파이프·보일러 동체 등 (7) - 석유 코크스·석유역청 및 잔재물(6) - 기타 측정기·검사용 기기·윤곽 투영기(5) -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등(4)

자료: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stat/)
주.HS CODE 4단위로 분류하여 작성

● 앞서 살펴본 수출현황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 대 동북3성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1.8%, 투자금액 기준)이 매우 작게 나타났다. 투자의 대부분은 랴오닝과 지린에 집중되고 있었다. 한국의 대 랴오닝, 대 지린 투자금액이 미화 약 2900만 달러, 21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반면, 대 헤이룽장 투자금액은 약 340만 달러에 불과했다.

<표 9> 한국의 대 동북3성 투자현황(2017년)

구분	동북3성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중국	동북3성/전국(%)
투자신고건수(개)	70	39	18	13	1501	4.7
신규법인수(개)	22	11	8	3	533	4.1
투자금액(미화 만달러)	5393.3	2931.4	2117.8	344.1	296435.1	1.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s://stats.koreaexim.go.kr/odisas.html)

● 한국의 대 동북3성 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랴오닝의 경우 도매 및 상품중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식료품 제조 등 분야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었다. 지린의 경우 의복 및 악세서리, 도매 및 상품중개, 식료품 제조에 대한 투자가 많았다.

투자규모가 가장 작았던 헤이룽장의 경우 식료품 제조, 도매 및 상품 중개에 대한 투자가 이뤄졌다.

한국의 대 동북3성 투자는 도소매업 또는 의류, 식료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에서 이뤄졌다. 기술관련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한국의 대 동북3성 주요 투자업종 및 금액(2017년)

구분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업종 및 수출액 (미화 백만달러)	- 도매 및 상품중개(699.2)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524.0) - 식료품 제조(500.0) - 창고 및 운송 서비스 (417.9)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등 장비 제조(400.0)	- 의복 및 악세사리(1724.1) - 도매 및 상품중개 (200.9) - 식료품 제조(83.5) - 전기장비 제조(40.0)	- 식료품 제조(205.3) - 도매 및 상품중개(71.1) - 화학물질·화학제품제조·의학 (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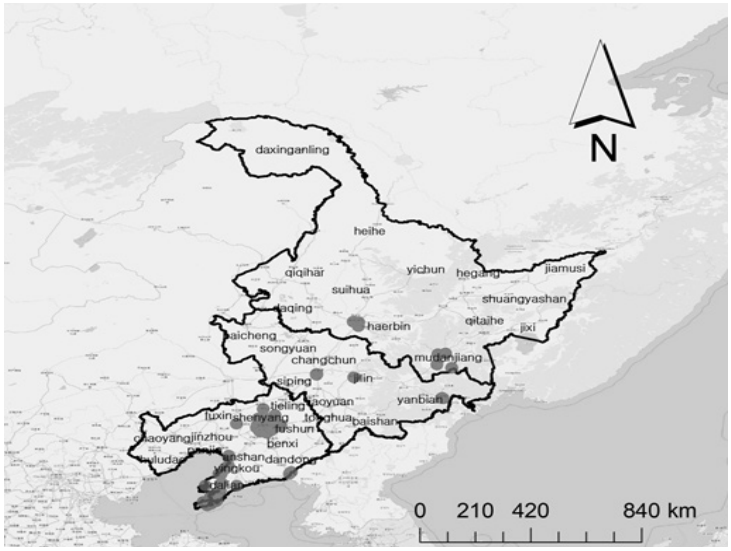
자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s://stats.koreaexim.go.kr/odisas.html)

● 한편, kotra의 〈2018-19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자료를 활용하여 동북3성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특성을 살펴보았다.[1] 2018년 말을 기준으로 동북3성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랴오닝에 집

1) 동북3성에 진출한 222개 기업자료를 기반으로 분석 실시하였다. 〈2018-19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는 기업정보공개에 동의한 일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다. 전수조사 자료가 아닌 만큼 현지의 동태를 파악하는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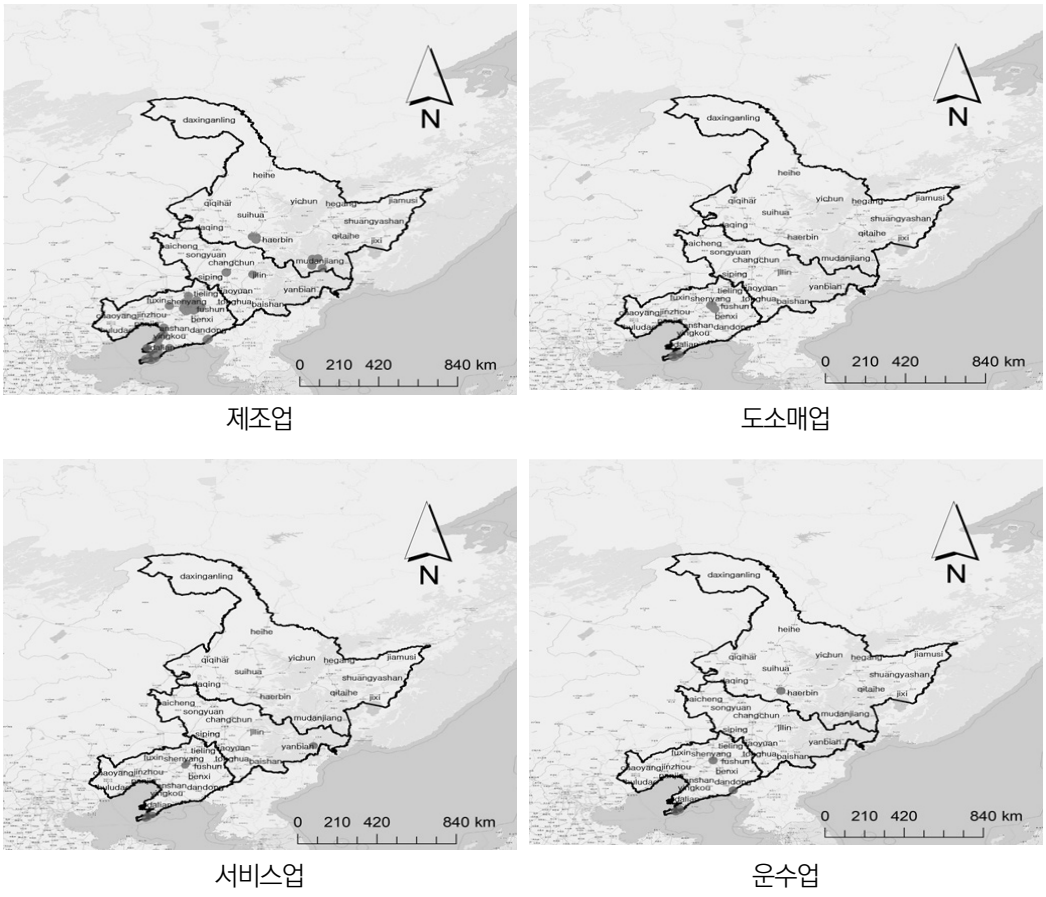
중 분포하고 있었다. 성내 도시 중 선양, 다롄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양과 다롄은 랴오닝의 경제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대외경제협력을 주요 성장동력 중 하나로 삼고 있다.

● 랴오닝에 비해 지린, 헤이룽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많지 않았다. 진출한 기업들은 주로 하얼빈, 창춘, 옌벤, 무단장에 분포하고 있었다.
지린, 헤이룽장의 수도 또는 러시아, 북한과의 협력이 유리한 도시들에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동북3성 진출 한국기업의 공간적 분포(2018년)
자료 : kotra 2018-2019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업종별로 살펴보면, 동북3성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3성 주력산업 분야와 관련이 깊은 자동차, 기계 장비, 화학 관련 기업들의 진출이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도소매업, 서비스업, 운수업 분야로 진출한 한국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분야 산업의 발전수준이 타 지역들에 비해 높은 선양, 다롄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들이 진출하였다.



<그림 4> 동북3성 진출 한국기업의 공간적 분포(업종별, 2018년)

자료 : kotra 2018-2019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Ⅳ. 종합 및 시사점

● 지금까지 동북3성의 경제산업 현황, 한국-동북3성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동북 3성의 경제발전 수준은 아직 높지 않으며 기술수준이 낮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별 경제현황을 살펴보면, 랴오닝이 지린, 헤이룽장에 비해 전반적인 경제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성의 주력산업은 대부분 2차 산업이었으며, 성별 주력산업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 한국의 대 동북3성 수출,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투자에서 대 동북3성 수출·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작게 나타났다. 또한 수출·투자의 대부분이 랴오닝에 집중되고 있다.

동북3성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역시 랴오닝에 집중 분포함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진출기업들은 랴오닝의 주력 산업분야인 제조업 기업이었다.

●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충남과 동북3성의 경제협력에 있어 각 산업의 기술과 관련된 협력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외경제협력의 경험이 많고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랴오닝을 우선적인 협력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동북3성의 경우 산업기술 수준의 고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인천, 경기, 경북, 충남 등 국내 주요 지자체들이 동북3성과 친환경 기술, 농업기술 등과 관련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2)]

랴오닝성의 선양, 다롄의 경우 자유무역시험구 설치 이후 서비스와 투자에 대한 개방수준이 이전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충남 기업 중국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남북관계 개선 이후를 대비하여, 랴오닝 단둥, 지린 옌볜과 같은 남북중 경제협력 거점지역과의 협력수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단,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의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동북3성은 모두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하고 있고 단둥, 옌볜 등 접경지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의지가 특히 강한 편이다. 다만 해당지역들의 경제산업 역량이 크지 않으며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는 만큼 경제협력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HKTDC(2018a), Heilongjiang: Market Profile, 2018, HKTDC
HKTDC(2018b), Jilin: Market Profile, 2018, HKTDC
HKTDC(2018c), liaoning: Market Profile, 2018, HKTDC
(2018), 東北地區發展報告, 2017
이현태 외(2017), 13·5 규획시기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수한·전유정(2018), 중국 동북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발전 전략 및 경제·산업 역량 분석, 인천연구원
kotra(2018), 중국 지방 성·시별 진출정보, kotra
kotra 선양무역관(2016), 중국 동북3성 개황 및 경제동향, kotra

2) 일례로, 2018년 인천의 한 산업공기기술 벤처기업이 동북3성 주요 국영기업인 바오산 철강에 공기정화기술을 수출하였다. 해당 기업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한중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 후보기업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중앙일보, "올스웰, 한·중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 후보기업 선정", 2019.01.30)

중국 지방정부 주요 정책 및 교류 동향

▶ 지린성 일반 현황 및 대외무역 현황
▶ 지린성의 주요 대외정책 및 동향
▶ 지린성의 수출입상품 시장 동향
▶ 2018 지린성 주요 국제교류 활동

전춘복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지린성 일반 현황 및 대외무역 현황

1. 지린성 개황

지린성은 헤이룽장성, 랴오닝성과 함께 동북3성으로 불리며 이들 3개 성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북한과는 1,206km, 러시아와는 232.7km를 접하고 있는데, 두만강의 지류지역에서 북한 나진, 러시아 포시에트와 함께 소삼각을 이룬다. 지린성은 중국에서는 유일하게 동해로 나가는 직접 통로를 가지고 있는 성이기도 하다.

<그림 1> 동북3성 및 지린성 지도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지린성 인구는 2017년 말 기준 2,717.43만 명이었으며, 인근 랴오닝성과 헤이룽장성의 인구는 각각 4,368.9만명과 3,788.7만 명이었다. 지린성의 도시화율은 56.65%이고, 노령화율은 12.38%로 노령화율은 중국 평균(11.4%)을 웃도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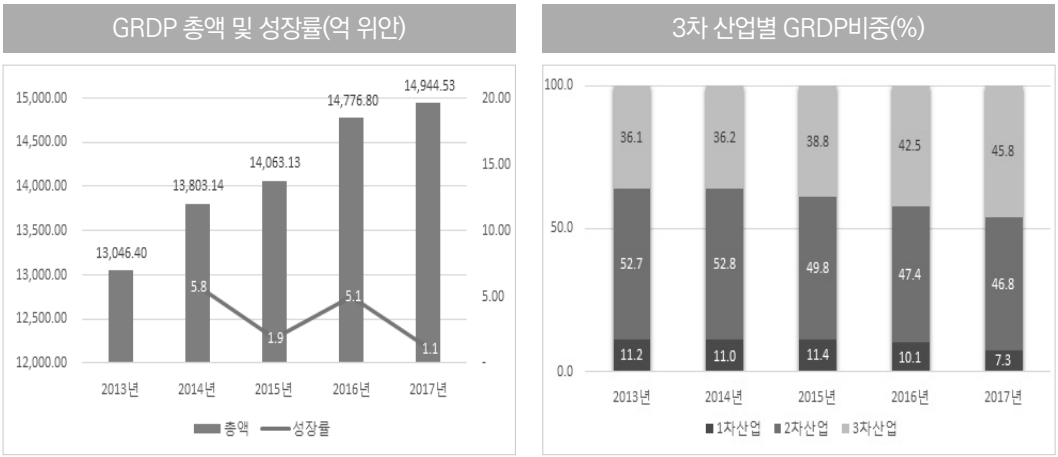
<표 1> 지린성 총 인구 및 인구구조(2017)

구 분		인구 (만명)	비율 (%)
총 인구		2,717.43	-
거주지별	도시인구	1,539.42	56.65
	농촌인구	1,178.01	43.35
성별	남성	1,376.92	50.67
	여성	1,340.51	49.33
연령별	0-15세	358.43	13.19
	16-59세	1,833.72	67.48
	60세 이상	525.28	19.33
	65세 이상	336.42	12.38

자료 : 2017년 지린성 통계연감

2. 지린성 경제상황

〈그림 2〉와 〈표 2〉에 제시했듯이 지린성의 2017년 GRDP총액은 14,944.53억 위안이며 전년보다 1.1% 상승하였다. 1인당 GRDP는 54,838위안이다 전체 GRDP중 산업별로는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으나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반면 3차 산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2> GRDP 총액 및 성장률과 3차 산업별 비중

<표2> 지린성 지역총생산액 및 산업별 구성 (2017)

(단위: 억 위안)

년도	GRDP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인당GRDP (위안)
				공업	건축업		
2013	13,046.40	1,466.74	6,871.96	6,059.28	840.75	4,707.70	47,428
2014	13,803.14	1,524.01	7,286.59	6,424.88	891.40	4,992.54	50,160
2015	14,063.13	1,596.28	7,005.71	6,112.05	927.06	5,461.14	51,086
2016	14,776.80	1,498.52	7,004.95	6,070.07	960.87	6,273.33	53,868
2017	14,944.53	1,095.36	6,998.51	6,057.29	964.14	6,850.66	54,838

자료 : 2017년 지린성 통계연감

3. 대외무역 및 해외관광객 규모

▶ 대외무역 규모

지린성의 지난 5년간의 무역거래 총액은 상승국면을 보이고 있다. 2013년의 1,583.2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1,854.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국 무역거래 총액에서 지린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세를 보이며, 2013년의 0.062%에서 2017년에는 0.045%로 하락하였다.

지린성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농산품, 경방직품(輕紡產品), 목재가구, 석유화학품, 의약품 등 6가지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반면, 주 수입 품목 중 자동차 및 부품, 야금광산(冶金礦產)은 증가하고, 농산품, 경방직품, 석유화학품의 수입은 하락하였다.

<표3> 지린성 무역거래 총액 및 중국 전체에서의 비중 (2013-2017)

(단위: 억 달러)

구분	2017	2016	2015	2014	2013
중국 전체	4,107,164.3	3,685,557.4	3,953,032.7	4,301,527.4	4,158,993.5
지린성 비중(%)	1,854.3 0.045	1,845.3 0.050	1,887.7 0.048	1.638.1 0.061	1,583.2 0.062

자료 : 2017 중국국가통계

지린성 각시·주(市·州)의 수출입 규모의 차이는 큰 편이다. 2017년 지린성상무청(吉林省商務廳)의 '대외무역운행상황(全省外貿運行情況)'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체 수출입에서 창춘시, 지린시, 옌볜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고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수출입 규모에서 창춘시가 약 75.9%를 차지하는데 이는 창춘이치집단(壹汽集團: 홍치자동차 생산공장)의 수출실적 영향이 크다. 2017년 기준 창춘이치집단의 지린성 전체 수출입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1%이며, 수출입 순이익은(17.5억 위안)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 무역대상국

지린성은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과 무역거래 중이며, 그 중 106개 국가 및 지역과의 수출입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중 독일, 일본, 슬로바키아, 미국, 러시아, 한국이 지린성의 주요 무역대상국이고, 최근 슬로바키아, 미국, 러시아와의 대외무역실적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밖에 '일대일로'연선국과들과의 무역거래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도 지린성의 무역거래규모는 다음의 〈표4〉에 제시한 바와 같다. 2017년 기준 지린성 전체 수출총액은 2,999,242만 달러, 수입총액은 9,542,245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출실적 상위 5개국은 각각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이고, 수입실적 상위 5개국은 독일, 일본, 헝가리, 체코, 러시아이다. 한국과는 352,274만 달러의 수출과 193,094만 달러의 수입실적을 기록하였다.

<표4> 지린성의 주요 무역대상국[1] 통계 (2017)

년도	수출			수입		
	금액(만 달러)		순위	금액(만 달러)		순위
총액	2,999,242	-	9,542,245	-	4,707.70	47,428
독일	202,151	6.7%	4	3,838,611	40.2%	1
일본	249,728	8.3%	3	953,444	10.0%	2
헝가리	2,072	0.1%	45	468,787	4.9%	3
체코	9,300	0.3%	33	386,746	4.1%	4
러시아	114,371	3.8%	5	266,750	2.8%	5
벨기에	57,598	1.9%	17	237,706	2.5%	6
한국	352,274	11.7%	1	193,094	2.0%	7
태국	61,961	2.1%	14	182,760	1.9%	8
미국	268,163	8.9%	2	171,840	1.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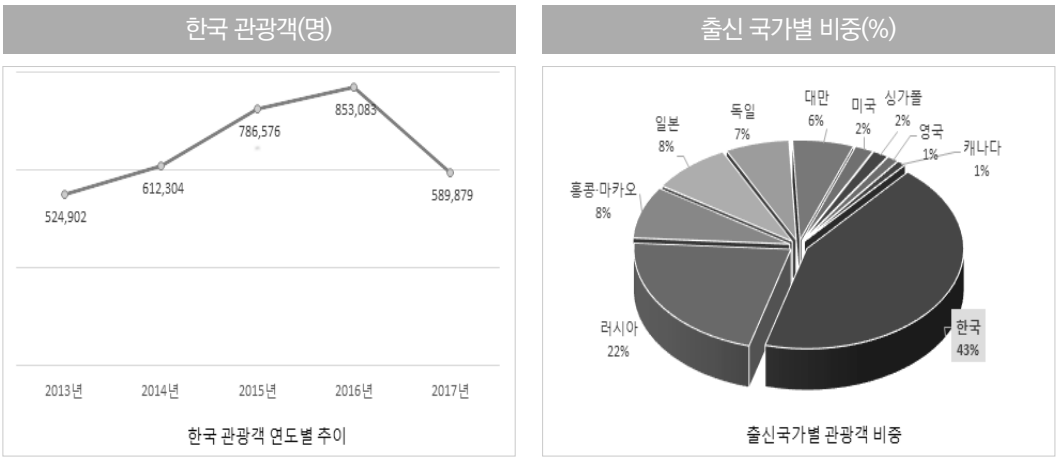
1) 지린성 무역대상국 중 수입기준 상위 15개 국가임. 지린성과 해외국가 간 무역거래액은 지린성 소재 사업장과의 거래 기준임.

이태리	59,773	2.0%	16	146,673	1.5%	10
스페인	36,689	1.2%	22	129,213	1.4%	11
호주	22,484	0.7%	26	120,913	1.3%	12
폴란드	7,731	0.3%	36	115,107	1.2%	13
프랑스	17,685	0.6%	27	104,143	1.1%	14
오스트리아	5,817	0.2%	39	99,812	1.0%	15

자료 : 2017년 지린성 통계연감

▶ 해외관광객 규모

대외개방과 함께 지린성을 찾는 해외 관광객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7년 기준 지린성 해외 관광객 규모는 약 137만 명이며, 해외관광객들의 출신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그 뒤로 러시아, 홍콩·마카오, 일본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지린성 해외관광객 통계(2017)

<표5> 지린성 해외관광객 통계 (2017)

(단위: 명)

연도 / 국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순위
해외	1,200,401	1,258,564	1,416,721	1,453,184	1,373,419	-
한국	524,902	61,2304	786,576	853,083	589,879	1

러시아	341,880	29,0728	248,802	187,979	296,462	2
홍콩·마카오	93,368	96,366	105,653	111,713	114,960	3
일본	52,925	45,768	47,508	55,445	113,203	4
독일	52,627	52,736	56,049	61,953	89,886	5
대만	75,672	81,073	83,246	86,088	85,940	6
미국	19,235	14,325	15,809	18,104	25,792	7
싱가폴	19,955	40,266	45,360	49,670	22,221	8
영국	6,855	9,774	10,829	11,437	16,045	9
캐나다	5,853	8,653	10,825	11,505	11,999	10
필리핀	5,116	4,557	4,049	4,191	5,015	11

자료 : 2017년 지린성 통계연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지린성은 대외무역거래 및 해외관광객 규모면에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외무역에서 대한국 수출은 1위이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7위로 나타났으며, 전체 수출입규모에서 한국과의 거래는 각각 수출 11.7%, 수입 2%를 기록하여, 수출입 전체 규모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2017년 해외관광객 통계에서도 관광객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 관광객은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간의 통계자료를 놓고 보면 2016년까지 한국 관광객은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2017년에 하락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양국의 사드갈등의 여파에 기한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5. 지린성의 개발구 추진 현황

2018년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한지 40년이 되는 해였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선언 이후 잇달아 선전, 주하이, 산터우, 샤먼에 경제특구를 설립하였다. 그 뒤 1984년 대외개방지역의 확대요구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로 경제특구와는 다른 배경과 목적을 가진 '개발구' 설립을 추진하였다. 중국의 개발구는 경제기술개발구(經濟技術開發區), 첨단산업개발구(高新産業開發區), 보세구(保稅區), 수출가공구(出口加工區), 변경경제합작구(邊境經濟合作區), 관광개발구(旅游度假区) 등 6가지 유형과 국가급, 성(省)급, 시(市)급, 현(縣)급, 향·진(鄕·鎭)급 등 5개 등급으로 나뉜다.

2018년 3월, 중국정부에서 발표한 『중국개발구심의공고목록(中國開發區審核公告目錄)』에 따르면 중국에는 총 2,543개의 개발구가 설립되어 있으며, 그 중 국가급개발구는 552개, 성급개발구는 1,991개이다. 지린성에는 총 62개의 개발구가 있는데 국가급개발구 14개, 성급개발구 48개가 있다. 지린성의 국가급개발구는 경제기술개발구 5개, 첨단기술산업개발구 5개, 변경경제합작구 2개, 수출가공구 1개, 보세구 1개가 설립되어 있다.

<표6> 지린성 국가급 개발구 건설현황

경제기술개발구	첨단기술산업개발구	변경경제합작구	수출가공구	보세구
창춘경제기술개발구	창춘첨단기술산업개발구	허룽(和龍) 변경경제합작구	훈춘수출가공구	창춘싱룽 종합보세구
지린경제기술개발구	지린첨단기술산업개발구	훈춘변경경제합작구		
창춘자동차경제기술개발구	옌지첨단기술개발구	-	-	-
숭왠(松原)경제기술개발구	창춘징웨첨단기술개발구	-	-	-
쓰핑(四平)훙줘이 경제기술개발구	퉁화(通化)바이오 첨단기술산업개발구	-	-	-

자료 : 투자지린(投資吉林), 중국개발구협회(中國開發區協會)

지린성의 국가급개발구 건설은 1991년 창춘첨단기술산업개발구 설립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창춘경제기술개발구와 훈춘변경경제합작구 등 개발구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 중 허룽변경경제합작구는 2015년에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가장 최근에 설립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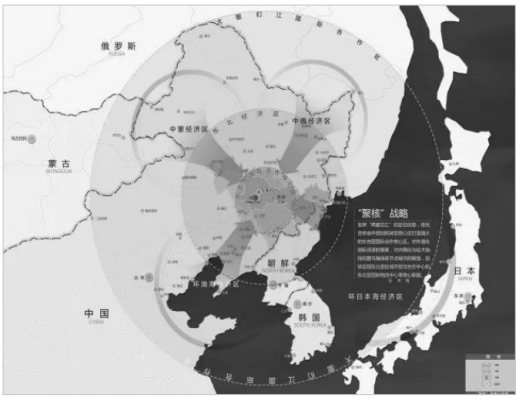
지린성 개발구의 발전 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 긍정적이다. 2017년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종합발전수준심사 종합평가에서 창춘경제기술개발구가 전국 19위를 기록하였다. 또 외자유치 평가결과에서는 창춘경제기술개발구와 창춘자동차경제기술개발구가 각각 2위와 10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변경경제합작구의 경우, 전국 17개 중 2개가 지린성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지린성이 중국 동북지역의 중요한 변경성이기 때문이다.

지린성의 주요 대외정책 및 동향

동북3성지역은 중앙정부의 동북진흥계획과 '일대일로'전략을 통해서 재부각되고 있다. 2009년 국무원에서 『랴오닝연해경제벨트발전계획』과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를 위한 중국두만강구역 합작개발계획요강』(이하 '창지투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동북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2014년의 '일대일로'전략에서 지린성의 북측노선에 유입되면서 지린성으로서는 대외개방의 문을 활짝 연 셈이다. 지린성의 대외개방은 한국, 일본, 러시아와 중국으로 형성되는 동아시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동아시아경제권에서 동북3성이 요충지이고, 동북3성에서는 지린성이 중심부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경제권에서 지린성의 영향력



창지투선도구 내 주요 거점

<그림1> 지린성 및 창지투선도구 위치도

▶ '창지투 개발계획' 개요

투먼쟝지역 개발은 1987년부터 제기되었고, 1995년부터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이 지역개발을 위한 협정들을 체결하기 시작하였다. '창지투선도구 개발계획'이 국가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도 연변(沿边)지역 개발과 개방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창지투 개발계획'은 창춘-지린-투먼 3만m^2를 개발해 동북아 물류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구상

을 담고 있다. 창지투선도구의 면적과 인구는 지린성 전체의 약 1/3을 차지하고, 경제총량의 약 1/2을 차지한다. 2010년부터 건설을 시작한 창지투선도구의 애초 목표는 2020년이 되는 시점에 경제총생산량을 4배로 증가시키고, 동북아지역에서 중요한 신흥공업기지, 현대농업시범기지, 첨단과학기술기지, 현대물류기지 및 동북아국제상업기지를 육성시키겠다는 것이다.

<표1> 창지투선도구 개발계획의 개요

구분	내용	
창지투의 지역범위	범위 : 창춘시, 지린시의 일부와 옌볜의 훈춘시를 포함함 규모 : 면적(3만km^2)과 인구(770만 명)가 지린성의 약 1/3	
추진목표	~2012년 : 훈춘시 인구 30만명, 창지투선도구 GDP 배로 증가, 삼림피복률 60% 이상, 수출입규모 대폭 증대, ~2020년 : 창지투선도구 GDP를 시작점보다 4배이상 증가	
개발구도	훈춘을 개발창구로, 옌지, 룽징, 투먼을 우선 개발지역으로, 창춘시와 지린시를 개발의 디딤돌로 대외개방선도구 건설 추진	
구역개발 계획	-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중점 건설 - 창지투와 국내 기타 개발구역과의 연동 적극 추진 - 투먼장국제지역과의 합작 추진	
중점 공정	투먼장국제자유무역지대 건설, 창지투국제내륙항구 건설, 국제협력산업지역 건설, 현대물류지역 건설	과학기술 창조지역 건설, 생태여행지 건설, 최첨단 서비스업 집중지역 건설, 현대농업모범지역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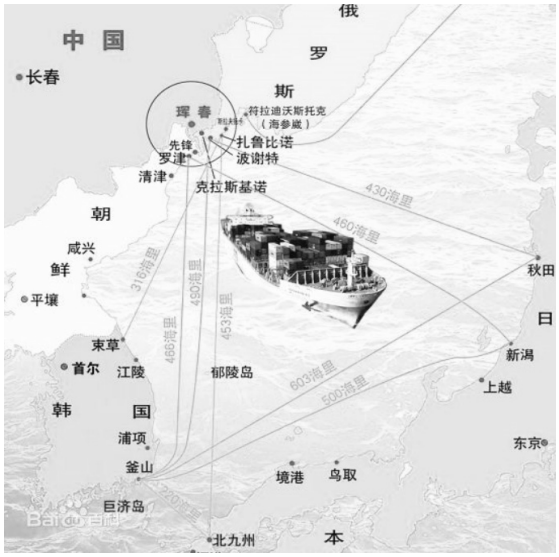
자료 : 지린성인민정부

▶ '창지투 개발계획'에 대한 국무원의 승인이 지린성에 주는 시사점

'창지투 개발계획'은 경제적인 대외개방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에 대한 군사와 정치적인 요소가 작용한다는 의견이 많다.

경제외적인 측면에서 지린성이 소수민족지역이면서 러시아와 북한과 접하는 다국경지역이고, 북한정세라는 불안요소가 혼재되어 더욱 이목이 집중되기도 한다. 따라서 '창지투 개발계획'은 지역정세 안정과 주변국과의 영토안정 등 요소를 띄고 있다.

경제개방 측면에서는 기존의 주강삼각주지역, 장강삼각주지역, 환발해만지역 중심의 경제발전 3대축에 동북지역을 추가해 중국경제성장의 축을 4개 지역으로 확대하고자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훈춘에서 약 50km 떨어진 나진항을 이용해 '차항출해'전략을 실현해 두만강지역의 국제물류 운송통로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훈춘 방천 〈-〉 북한 나진항 약 50km

북한 나진 〈-〉 일본 나카타항 약 500해리

북한 나진 〈-〉 부산항 약 466해리

자르비노항 〈-〉 일본 아키타항 약 430해리

자르비노항 〈-〉 속초항 약 310해리

<그림2> 중국 동북권의 '차항출해'전략도

자료 : 바이두백과

'창지투 개발계획이' 국가급 전략으로 승급되면서 지린성의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교통인프라가 대폭 개선되었다. 창지투선도구내 지역간 도로와 철도 건설, 중국 다른 지역과의 교통망 건설, 국가간 교통인프라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중에서도 2015년 8월에 개통된 10개국을 관통하는 '창만어우(長滿歐)'열차는 동부권 출발 유럽행 열차중에서 운행실적이 가장 좋다. '창만어우(長滿歐)'열차의 작년 1-11월의 화물 운송량은 20.7만 톤(약 63.7억 위안)을 기록해 동기대비 27배 증가한 것이다.

또 다국경지역의 관광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중국 관광객들사이에서는 자차를 이용한 변경관광이 인기가 많고, 러시아에서는 훈춘 '새해'관광'의 붐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 변경지역에서는 북한 해산물관광도 인기가 많다고 한다.

<그림 3> 자차를 이용한 러시아 관광(좌), 훈춘에서 신년관광을 즐기는 러시아 관광객들(우)

자료 : 훈춘시범구망, CRI

지린성 수출입상품 시장 동향

지린성상무청(吉林省商務廳)은 대외무역거래와 내수시장 활성화에 따라 수출입 상품 거래 촉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 9월에는 창춘싱룽종합보세구내에서 '수출입상품전시거래센터(進出口商品展示交易中心)'가 운영을 시작했고, 온라인을 통한 국경 간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올해 1월 『국경간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건설실시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상무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5.4억 위안을 기록했고, 전년대비 28.6%의 성장을 기록했다고 하였다. 또 지린성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은 30%이상의 증가를 기록하는 추세에 맞춰 2018년 7월, 국무원으로부터 창춘시에 『국경간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조성계획』을 승인받는 등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보면 창춘지역이 동북아지역에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지린성 첫 수출입상품전시거래센터(進出口商品展示交易中心) 설립

<그림 1> 창춘 수출입상품전시거래센터 전경

자료 : 지린일보(吉林日報)

2018년 9월 28일, 지린성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출입상품전시거래센터가 창춘에서 오픈하였다. 수출입상품전시거래센터는 창춘싱룽종합보세구내에 위치해 있으며 20여 개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전시되어 있다. 이는 지린성정부가 중국인들이 해외 여행 시 쇼핑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직구나 지인을 통한 구매대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제품들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에 대비한 것이다. 수출입상품전시거래센터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해외수입상품을 접할 기회를 폭 넓게 제공할 뿐만아니라 정품이 보장된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출입상품전시거래센터는 총 4개 층으로 건설되었으며, 1층은 자동차전시장, 2, 3층은 와인, 식품, 화장품, 영유아용품, 가구 등과 수입품마트가 입점해있고, 4층에는 지린성특산품관이 입점해있다.

1층 국제 럭셔리 자동차 전시장 ◀
- 입점 브랜드: 벤츠/롤스로이스/ 랜드로버/벤틀리/도요타 등

▶ 2-3층 수입와인, 식품, 화장품, 영유아용품, 인테리어제품 등

4층 지린성 특산품 전시 판매장 ◀
- 지린성의 유명 특산품 및 수출 유망 상품 전시

<그림 2> 지린성 수출입상품전시거래센터 층별 안내

자료 : 지린일보, 창춘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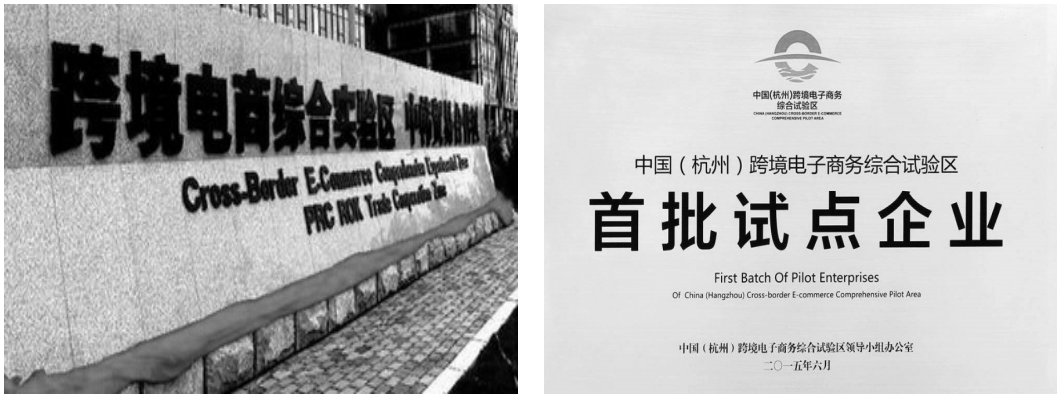
창춘 수출입상품전시거래센터는 국경간 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구매모델을 창출하겠다는 포부이다. 소위 O2O구매형식을 적용할 계획으로서 향후 e-싱룽(興隆)을 운영해 오프라인으로 제품 체험 및 확인 후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한다.

지난해 충남도와 자매교류로 관계를 격상시킨 랴오닝성에서도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입상품전시센터의 건설에 착공할 예정이다. 수출입상품전시센터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해외생산업체에서 직접 공급하는 방법을 채용할 예정이며, 해외 물건지부터 선양까지 화물 컨터이너 직배송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이기도 하다.

중국 내수시장의 변화를 인지하고 많은 해외브랜드 업체에서 앞 다퉈 중국소비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작년은 중국이 소비시장으로 탈바꿈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화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수입품박람회에 세계 170개 국가의 3,600여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를 통해 중국 소비시장을 겨냥한 세계기업들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 수 있다. 또 이번 박람회에서 중국은 앞으로 15년간 매해 평균 약4,500조원을 수입하겠다는 포부를 보여주어 향후 국내 제품의 중국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다.

▶ 창춘 국경간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 건설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집계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의 '2017-2018중국국경간전자상거래시장통계보고'에 의하면 2017년 중국 국경간전자상거래 규모는 8.06만억 위안을 기록했고 이는 전년대비 20.3% 증가했으며, 2018년 상반기에만 4.5만억 위안을 달성해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했다고 한다. 지린성의 경우 중국 동북지역의 주요한 변경성으로서 러시아, 일본, 한국과 위치적으로 가까워 특히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다. 지린성의 국경간전자상거래도 약 30%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림 3>국경간전자성거래종합시험구 간판 사진

이러한 소비추세에 맞춰 중국 상무부는 2015년 항저우시에 첫 '중국국경간전자상거래시험구'설립을 추진하였고 다음해에 잇달아 톈진, 상하이, 충칭 등 전국 12개 도시에 제2차 국경간 전자상거래시험구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2018년에는 총 22개시에 제3차 국경간전자상거래시험구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창춘시가 포함된다. 이는 정부가 창춘시를 동북아 국경간 전자성거래의 핵심 노드시티(節點城市)로 건설하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2018년 7월에 발표된 '중국(창춘)국경간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건설실시방안'은 연차별 세부 발전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우선, 2019년에는 기틀을 잡는 동시에 ① 대기업 수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 5개사 유치 혹은 육성 ② 국경간 전자상거래 전문 창업인큐베이터 3~5개사 육성 ③ 국경간 전자상거래 상품 O2O전시센터 건설 ④ 국경간 전자상거래 전문인재교육센터 설립 등 사업을 추지할 예정이다.
- 2020년에는 ①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 총 10개사 정도 육성 ② 해외에 전용창고 건설 ③ 약 10개 정도 인지도가 있는 전자상거래 브랜드 육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 2023년에는 앞서 4년간의 성과를 안정시키는 토대 하에 '인터넷+대외무역'을 추진해 신흥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시키고자한다.

창춘 국제전자성거래종합시험구 건설시 3개 분야별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종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전자통관, 해관, 세무, 외환, 상거래, 교통, 보험 등 기관과 기업이 데이터를 신속하게 교환하는 정보관리 서비스를 구축한다. 다음은 오프라인 종합산업단지 플랫폼을 구축한다. 창춘신구, 창춘싱룽종합보세구, 창춘징웨첨단기술산업개발구, 차오양구 등 단지를 첫 시험구로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창업혁신'플랫폼을 구축한다. 전문인재 양성과 아울러 '대중창업, 만중혁신' 창업활동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2018 지린성 주요 국제교류 활동

지린성은 2017년 기준 총 155개 국가 및 지역과 교류 혹은 경제무역합작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방정부차원의 교류는 24개 국가의 52개 성(주), 시와 자매·우호관계를 맺은 상태이다.

2018년은 중국이 개혁개방한지 40년이 되는 해였다.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지린성정부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또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대외적으로는『세계야, 안녕! 나는 지린이야(世界妳好, 我是吉林)』라는 프로젝트를, 대내적으로는『창춘의 외국인(老外在長春)』이라는 활동과『지린성의 외국인(外國人在吉林)』이라는 다큐를 제작하였다.

▶『세계야 안녕! 나는 지린이야』프로젝트 추진

『세계야 안녕! 나는 지린이야』라는 주제 하에 해외 유명 블로거(海外大V)들을 지린성으로 초대하여 2018년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행사였다.

<그림 1>『세계야 안녕! 나는 지린이야』홍보포스터와 블로거 명단

자료 : CRI(國際在線)지린

이번 행사에는 미국(2명), 호주, 프랑스,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한국까지 포함해 8개 국가에서 총 9명의 유명 블로거를 초대해 개혁개방 40년 동안 지린성이 경제, 과학기술, 생태문화 등 면에서 가져온 성과를 직접 둘러보았다.

▶ 블로거단이 직접 체험하는 지린성 이모저모

블러거단이 남긴 수기 및 ◀ 기록들

▶ 사진으로 보는 이야기

<그림 2> 『세계야 안녕! 나는 지린이야』주요활동들

자료: CRI 지린

▶ 지린성 거주 외국인들의 삶과 일터를 들여다보다

지린성인재교류서비스중심(吉林省國際人才交流服務中心)과 지린망(吉林網)의 공동 주관하에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다큐 『지린의 외국인』을 제작하고 온라인홈페이지 CRI지린을 통해서 『창춘의 외국인』이라는 주제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추진하는 목적은 외국인들의 눈을 통해 지린의 면모를 들여다보고, ‘일대일로’에서 지린성의 위치를 재정립해가자는 것이었다.

<그림 3>『창춘의 외국인』 온라인 홈페이지 캡처

자료: CRI 지린

『지린의 외국인』이라는 다큐는 37분짜리로 제작되었으며 약 2개월에 걸쳐서 촬영되었다.

<그림 4> 다큐『지린의 외국인』영상 캡처

자료 : 지린성인력자원과사회보장청(吉林省人力資源和社會保障廳)

참고자료

전문자료 :

양운철 외1인 , 창지투(長春-吉林-圖們) 개발계획과 동북아 경제협력
전자상거래연구센터(電子商務研究中心), 2018(상)중국국경간전자상거래시장통계보고서

기관 인터넷 사이트 주소 :

吉林省政府門戶網站, http://www.jl.gov.cn
吉林省統計局, http://tjj.jl.gov.cn
投資吉林, http://www.jl.gov.cn
中國開發區協會, http://www.cadz.org.cn
長春市人民政府, http://www.changchun.gov.cn
吉林省政府發展研究中心, http://fzzx.jl.gov.cn
CRI國際在線網絡, http://jl.cri.cn/lwzcc

吉林省人力資源和社會保障廳, http://hrss.jl.gov.cn/zh
吉林省外事僑務辦公室, http://wb.jl.gov.cn
네이버백과, https://search.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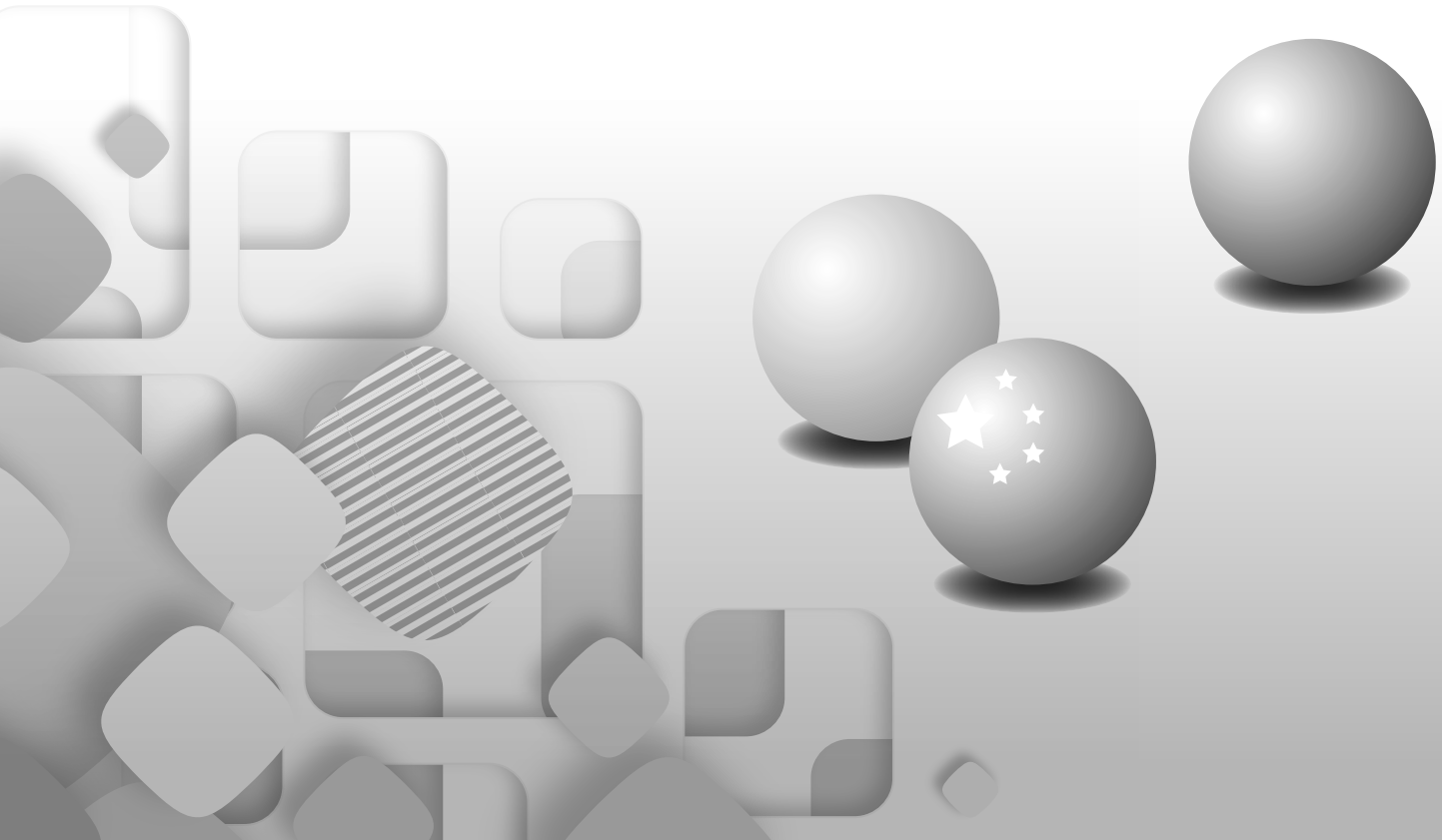
기사자료 인터넷 사이트 주소 :

吉林省首個進出口商品展示交易中心試營業, (검색일 : 02. 10)
http://jl.people.com.cn/n2/2018/0930/c349771-32116875.html
吉林:融入"壹帶壹路"打造向北開放重要窗口, (검색일 : 02. 01)
http://www.xinhuanet.com//fortune/2017-09/07/c_1121622202.htm
中國(長春)跨境電子商務綜合試驗區建設實施方案, (검색일 : 02. 05)
http://www.ccmbc.gov.cn/page/197/1738.htm
俄羅斯遊客來吉林琿春過新年成"時尚", (검색일 : 01. 10)
http://jl.cri.cn/20190102/5bf5cb33-161f-1359-2392-915a37216934.html
"長滿歐"輻射範圍列東線中歐班列之首, (검색일 : 01. 16)
http://jl.cri.cn/20180115/1ee43aa5-74b4-347d-76a1-6105d10ef99b.html
"世界妳好 我是吉林"——2018海外大V吉林行活動將於11月10日啟動, (검색일 : 02. 16)
http://jl.cri.cn/20181109/fb00be88-d50a-ea76-4cec-68785148b9e8.html

현대중국의 이해

마오쩌둥 말년의 생활

박인성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마오쩌둥 말년의 생활을 이해 또는 짐작할 수 있는 기록으로 중국내 보고문학 작가인 궈진룽(郭金荣)이 쓴 "마오쩌둥의 최후의 세월로 걸어 들어가다(走进毛泽东的最后岁月)"란 제목의 책[1]이 있다. 궈진룽은 이 책에서 마오쩌둥이 죽기 전 마지막 489일간 마오의 신변에서 간호원 겸 생활비서의 역할을 한 멍진윈(孟锦云: 1948-)의 구술 회고를 통해 마오의 생명 마지막 기간의 생활과 정신세계를 구체적으로 정리, 묘사했다.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마오쩌둥의 생애 마지막 기간의 흥미있는 장면들을 소개한다.

멍진윈은 후베이성(湖北省) 출생이고 어린시절부터 자태가 아름다웠다. 키가 훤칠하게 크고 피부가 희고 곱고 용모가 수려했다. 특히 맑은 두 눈은 늘 마치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녀는 12세에 공군정치가무단(空政歌舞团)에 들어 갔고 1959년에 무도학생반(舞蹈学员班)에 선발되었다.

당시 중난하이(中南海)의 중공당 간부들의 주요 오락활동은 사교춤이었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중난하이에서 무도회가 열렸다. 이 무도회의 고급간부들의 춤 파트너 대상을 공군정치가무단(空政歌舞团)의 단원중에서 선발했다. 물론 정치, 일상행동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선발했다. 군대 문공단(文工团)의 모든 단원들은 입단 단계부터 수차례 정치심사를 거쳤고 조직적으로 선발 및 동원하기가 편리하고 규율이 엄해서 정치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멍진윈이 처음 중난하이(中南海) 무도회에 갔을 때 그녀의 나이 14세였다. 원래는 대개 20대의 단원들이 중난하이 무도회에 갔고 멍진윈과 같이 어린 단원은 대상이 아니었으나 선배 언니 단원들 중에 결혼, 임신, 출산, 그리고 공연 일정 등으로 공백이 생기게 되면 견습시킨다며 어린 단원들을 대신 참가시켰다.

1963년 4월 어느 날, 멍진윈은 행정사무실로부터 주말에 중난하이 무도회에 가야 한다는 임무 부여 통고를 받았다. 종종 일부 선배 언니 단원들이 민간인 복장 차림으로 어디선가에서 보내 온 승용차를 타고 외출했고 밤 늦게 돌아오던 모습을 보았었다. 멍진윈은 감히 그녀들에게 어디로 무슨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지 물어보지 못했으나 점차 소문을 듣고 대강 짐작으로 알고 있었다.

한편으론 흥분되고 한편으론 겁나고 긴장된 상태로 주말을 맞은 멍진윈은 토요일 오후에 일찌감치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7-8명의 문공단원들과 같이 저녁 6시가 좀 지나서 중난하이(中南海)에서 보낸 지프차를 타고 베이하이(北海)를 거쳐서 중난하이 북문으로 들어갔다. 지프차가 중국 고전건축양식의 건물 입구에 도착한 후 차에서 내린 그녀들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법 긴 복도를 지나서 춘우재(春藕斋)라 씌어져 있는 문패를 단 건물의 빨간색 문 안으로 들어선 후 외투와 모자 등을 벗어 걸고 다시 안쪽의 문으로 무도장(舞厅)으로 들어섰다.

무도장 안은 작은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은 상태였고 직원 몇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며 차와 과자 등을 차리고 있었다. 그녀들은 함께 의자에 앉았다. 같이 온 선배 언니들은 서로 한담을 나누

1) 郭金荣. 2009,「走进毛泽东的最后岁月」, 中共党史出版社: 北京

는 등 가볍고 편한 모습이었다. 이곳이 처음인 멍진윈은 긴장한 상태로 무도장 안을 둘러 보았다. 무도장 바닥과 소파와 의자들 모두가 잘 정돈되고 깨끗했다. 중국 고전건축양식의 건물내부는 큰 홀 공간이었지만, 바닥과 벽, 천장 등 내부장식은 현대식으로 되어 있었다. 무대 우측은 악단을 위한 공간이었고 좌측에 있는 문은 복도로 통하는 것 같았다.

저녁 7시 조금 지나서 주더(朱德) 총사령관이 먼저 도착했다. 문공단원들중 어떤 사람은 일어서고 어떤 이는 "주사령관(朱司令)"하고 부르며 인사했다. 당시 주더의 나이는 70세가 넘었으나 걸음걸이 보폭이 크고 힘찼고 가슴을 펴고 고개를 쳐들고 허리와 등이 꼿꼿한 군인의 면모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멍진윈은 선배 언니들과 같이 주더 사령관 앞으로 갔고 선배 언니들이 새로온 후배들을 주사령관에게 소개했다.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류샤오치(刘少奇)와 왕광메이(王光美) 부부가 같이 왔다. 류, 왕 부부의 춤 스텝은 평온하면서도 경쾌했다. 그러나 주더 사령관의 스텝은 초보 수준 같았다.

22시가 좀 지났을 때 돌연 무도회장 안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났고 음악이 중지되었다. 무대 좌측 문 쪽에서 마오쩌둥 주석이 걸어 들어왔다. 선채로 자신과 약 2미터 앞에서 사람들에게 미소짓고 머리를 끄덕이며 걸어가고 있는 마오쩌둥을 바라보는 멍진윈은 머리 속이 멍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이 사람이 정말 어린 시절부터 찬양가 노래를 부르던 그 마오 주석이란 말인가? 마오의 옷차림새는 매우 소탈했다. 회색 중산복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 다려진 상태가 아니었고 소매는 크고 길어서 손을 거의 반 정도 가렸다. 특히 과다하게 크고 넓어서 편하게 보이는 바지는 소탈하고 대범한 인상을 주었다.

마오가 자신의 소파에 앉아서 복무원이 가지고 온 하얀 물수건을 받아 들고 얼굴과 손을 문질러 닦았다. 복무원이 작은 소리로 마오와 몇 마디 주고 받고 가볍게 고개를 끄떡였다.

잠시 후 악대가 춤곡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자주 무도회에 참석했던 문공단원 여성 한 명이 마오 앞으로 걸어와서 목례하고 춤을 청하는 자세를 취했고 마오가 일어나서 그녀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춤추는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마오의 스텝은 매우 컸고 줄곧 바닥을 쓸어서 마치 바닥을 문지르며 걷는 것 같이 보였다. 큰 체구 때문인지 움직임이 별로 부드럽지 않았다. 한편으론 춤을 추면서 한편으론 파트너 여성과 한담을 나누고 있었다. 마오는 춤동작이 매우 편안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어 보였다. 이 두 사람이 춤을 추며 몇 바퀴 돌고 마오의 소파 부근에 왔을 때 음악이 멈추었고 마오도 춤을 멈추고 소파에 앉아 쉬었다.

멍진윈은 줄곧 곁눈질로 마오쩌둥을 보고 있었다. 잠시 후 악대의 연주가 다시 시작되었고 경쾌한 춤곡이 흐르는 그 어느 순간에 멍진윈은 마오 주석이 미소 지으며 자신에게 눈길을 주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 순간 그녀도 황급히 답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본능적으로 기민하게 마오쩌둥의 의도를 감지했다. 멍진윈이 황급히 일어서서 마오쩌둥을 향해서 걸어가서 마오의 앞에 서서 방금 전 주석과 춤을 춘 선배언니가 했듯이 춤을 청하는 동작을 했

다. 마오쩌둥이 웃고 미소 지으며 일어나 멍진윈의 손을 잡고 그녀와 같이 홀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이 때 멍진윈은 다시 긴장되고 그전에 다소 진정되었던 마음이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 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워 지는 마음을 어쩌지 못했고 동작도 허둥스러워 졌다. 마오가 여전히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어린 동지, 긴장 풀어, 스텝도 아주 좋구만"

춤이 진행될수록 멍진윈의 마음이 점차 안정되었고 스텝도 경쾌해졌다.

"처음보는 것 같구나?"

"네, 오늘 처음 왔어요"

"그랬구나, 이름이 뭐지?"

"멍진윈(孟锦云)"

"오, 맹자선생(孟夫子)과 같은 성이군. 이름이 좋다. '비단(锦)'에 '구름(云)'을 더 하니 '꽃(花)'을 더 한 것보다 더 예쁘구나, 고향은 어디지?"

"후베이(湖北) 우한(武漢)"

"오, 후베이라, 내 고향 후난(湖南)과 호수를 사이에 두고 이웃한 절반 동향이네" [2)]

마오의 친근한 말과 행동이 멍진윈의 긴장, 당혹감을 해소시켜 주었다. 그렇게 춤추고 한담하는 동안 그녀는 마오가 매우 쉽게 친근해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멍진윈은 이렇게 마오쩌둥을 알게 되었다. 그후 멍진윈은 거의 매주 중난하이 무도회에 참석했고 그때마다 마오쩌둥의 파트너로 함께 춤을 추었다. 마오는 늘 친근하게 그녀를 "작은 절반동향(半个小同乡)"이라고 불렀다.

멍진윈은 점차 마오주석의 면전에서 스스럼이 없어졌고, 마오도 기민하고 쾌활하고 천진한 그녀와의 대화에 때로는 파안대소하면서 즐거워했다.

"주석, 주석 입 아래에 사마귀 점이 있네요. 우리 할머니가 이것은 복점이라고 했어요" 멍진윈이 마오를 바라보며 미소지으며 말했다.

마오가 멍진윈의 희고 깨끗한 볼에 있는 조그만 점을 보면서,

"너의 얼굴에도 점이 있으니 너도 복이 있겠구나"

"그건 아니에요. 주석의 점은 후난(湖南)의 점이고, 이 점은 후베이(湖北)의 점이에요. 자란 지방이 달라요."

멍진윈의 대답을 듣던 마오가 하하하 크게 웃었다.

"하하하, 작은 아홉 머리 새(九头鸟)[3)]가 바로 너인 줄 몰랐다."

"네? 아홉 머리 새?"

"하늘엔 아홉 머리 새, 땅에는 후베이인(湖北佬), 너도 들어서 알고 있겠지?"

---

2) 마오의 고향이 후베성(湖北省)과 동팅호(洞庭湖)를 경계로 하고 있는 후난성(湖南省)이다. 동팅호 호수 남쪽을 후난(湖南), 호수 북쪽을 후베이(湖北)라 부른다.

3) 아홉 머리 새(九头鸟)는 후베이 지방의 전설로 전해지는 머리가 아홉개 달린 새로 매우 영리하고 사납다. 후베이지방 사람들이 머리가 좋기로 유명해서 다른 지방 사람들이 후베이 사람을 부르는 별칭이기도 하다.

"물론 알아요. 그런데 그 새는 매우 사납잖아요"

"그럼 너도 사나운 작은 새라는 말이네"

"저는 정말 아홉 머리 새가 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사납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오, 그렇게 많은 고려도 하고 있구나, 그러나 난 아홉 머리 새가 되고 싶은데 될 수가 없구나"

"저는 그 새의 이름이 좋지 않게 들려요, 괴이하고 무서운 느낌이 들어요. 아, 주석, 우리 우한의 황학루(黄鹤楼)에 가 봤어요?"

멍진윈이 화제를 바꾸었다. 이어서 우창어(武昌鱼)의 신선한 맛, 원조감마탕(老感麻糖)의 달콤한 맛, 동호(东湖)의 아름다운 경관, 거북산(龟山), 뱀산(蛇山)의 전설, 우당산(武当山)의 괴담 등으로 화제가 바뀌었다. 마오쩌둥은 멍진윈이 거론하는 화제에 대해서 마치 자기 고향의 저수지와 대나무 갈대에 대해서와 같이 잘 알고 있었다.

어리고 귀엽고 크고 반짝이는 눈을 가진 멍진윈이 격식에 구애 받지 않고 천진난만하게 질문하고, 마오쩌둥은 때로는 선생님 같이 때로는 아버지 같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졌다. 이처럼 마오쩌둥은 새로온 어린 소녀대원들을 좋아했고 특히 멍진윈을 좋아했다.[4)]

[중공 최고 지도자들의 취미]

마오쩌둥(毛泽东)의 취미는 단연 수영이었다. 73살에 장강(长江)을 헤엄쳐 건넌 뒤 "마음이 후련하고 기분이 유쾌하다"며 건강을 과시한 마오쩌둥은 생전에 장강 외에도 후난성(湖南省)의 샹강(湘江)과 베이다이허(北戴河) 등에서 수영을 하곤했다. 마오쩌둥은 또 춤추기도 즐겨 혁명 당시에 혁명 근거지였던 옌안(延安)이나 시바이포(西柏坡)에서도 춤을 췄으며 이후 베이징의 지도자 거처인 중난하이(中南海)에서도 무도회를 열곤 했다. 탁구도 즐겼다. 그는 후난성 제일사범학원 시절 탁구를 배웠고 이후 옌안에선 경호원들이 나무판으로 탁구채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고 한다.

덩샤오핑(邓小平)은 브리지 카드 게임을 즐겼다. 1952년에 이 게임을 배웠고 국제 브리지협회는 덩샤오핑이 중국에서 이 게임을 널리 알린 공로로 그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구기 종목 관람도 즐겼다. 1977년에는 축구 경기 관람으로 세 번째 복권(復權)을 알리기도 했다. 특히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는 전체 52경기 가운데 50경기를 시청했다고 한다. 1979년 미국 방문 당시, 미국측이 그의 구기 종목에 대한 관심을 파악하고 그를 농구장에 초청하기도 했다.

장쩌민(江泽民)은 중국 전통 연극인 경극과 노래부르기를 좋아했다. 그는 1993년 당

4) 郭金荣, 2009: 2-9쪽

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과의 회동 당시 색소폰과 중국 전통 악기인 얼후(二胡)에 대해 이야기해 친밀감을 높였다. "신경보(新京报)"는 장쩌민이 음악을 외교의 도구로 즐겨 사용했다고 평했다. 수영도 즐겼다. 1997년 미국 방문 때는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파란색 수영복과 빨강색, 흰색이 섞인 수영모를 쓰고 1시간 동안 해수욕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하기도 했다.

후진타오(胡锦涛)는 춤에 일가견이 있었다. 학생 때 그는 춤이 매우 뛰어났다. 체육 종목 중에선 그도 탁구와 수영을 취미로 꼽았다. 그는 과거 "만일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면 어떤 종목을 고르겠는가"라는 물음에 "탁구"라고 답했다. 2008년 당시 중일 청소년 우호 교류 행사 당시 그는 중국, 일본 탁구선수들과 탁구를 했다. 당시 함께 운동을 한 선수들은 "후진타오의 실력이 그렇게 뛰어날 줄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한다.

시진핑(习近平)은 "독서와 영화감상, 여행과 등산이 취미"라고 했다. "특히 독서는 이미 내 생활 습관중 하나가 됐고 이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운동 중에서는 수영과 등산을 좋아하는데 수영은 4-5살 때부터 배웠다"고 했다. 또 "축구와 배구, 농구, 테니스, 중국 무술 등도 좋아한다"며 "겨울 올림픽 종목 중에선 아이스하키와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등을 보는 걸 좋아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출처: 新京报 ,2014. 2.10]

그러나 1966년 5월,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중난하이의 무도회 개최 회수도 점차 줄어들더니 결국 정지되었다. 중난하이 무도회에 참석해서 마오쩌둥과 중공 당 고위 간부들의 파트너 역할을 하던 멍진윈과 그의 동료들의 당시 나이는 18, 19세였다. 혈기왕성했던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동란의 격류 속에 용감하게 뛰어들었고 열렬하게 혁명을 수행하는 "작은 지도자(小將)"들이 되었다.

당시에 "공업은 따칭(大庆)을 배우고 농업은 따자이(大寨)를 배우고, 전국 인민은 해방군을 배우고 또한 해방군은 공군을 배우자"라는 구호가 유행했다. 이것은 린뱌오(林彪)와 그의 부인 예췬(叶群)[5]의 공군에 대한 특별한 관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시 린뱌오는 자신의 측근인 우파시엔(吴法宪)을 공군총사령관으로 임명했고, 우파시엔은 린뱌오의 아들 린리궈(林立果)를 공군

5) 린뱌오의 부인인 예췬(叶群: 1917-1971)은 당시 린뱌오 판공실 주임으로 직무도 높고 실제 세력은 더욱 컸다. 당시 공군사령관이자 린뱌오의 부하이자 측근인 우파시엔(吴发宪: 1915-2004)은 예췬의 말이라면 고개 숙이고 귀를 갖다 붙이고 들을 정도로 충성과 아첨을 바치고 있었다. 린뱌오는 군권(军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군대를 장악하려면 먼저 공군을 장악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입대 후 불과 2년 반 만에 공군 작전부 부부장으로 임명했다.

이처럼 인민해방군 내에서도 공군의 위상이 높았고 공군의 선전기구인 공군 문공단 내의 멍진윈을 포함한 작은 지도자(小將)들이 문공단 내에서는 물론 전체 공군의 혁명활동을 주도했으므로 때로는 몇몇 젊은 지도자들의 언행을 통해서 전체 운동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었다.

문공단원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관련되는 한 장면을 보자. 1971년, 문공단 내의 보통 무도연기자 여성중 당 고위층 인사(아마 마오쩌둥)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한 여성의 결혼식 광경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결혼식장이 비교적 넓은 장소였는 데도 선물을 들고 온 축하객들이 넘쳐서 식장 안으로 다 들어 가지 못했고 축하문구를 달고 온 승용차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식장으로 통하는 골목길 수백미터 밖까지 늘어서 있었다. 린뱌오의 부인이자 판공실 주임 예췬과 인민해방군 공군 총사령관 우파시엔도 참석했다.

당시 문공단은 두개의 파로 나누어져 있었다. 하나는 "강골혁명조반단(硬骨头革命造反团)"이라 불렀고, 다른 하나는 "홍기혁명조반단(红旗革命造反团)"이라 불렀다. 이 양대 파벌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홍기파 소장들이 "마오주석께서 우리 홍기조반단(红旗造反团)을 지지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선전하면, 상대편의 소장들은 "마오주석께서 홍기조반단은 흑기조반단(黑旗造反团)이라 말씀하셨다."라고 반박하는 식이었다. 이 같이 두 패거리의 싸움이 가열되면서 문공단 내의 혁명 분위기도 아수라장이 되어 갔다.

당시 명분과 기세에서 우위에 있던 홍기파가 강골파 조반단을 공격해서 간판을 부수고 인장을 빼앗고 사무실을 뒤집어엎고 수색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당혹스럽고 참담해 하는 강골파 소장들에게 선배 언니들이 귀띔해 주었다. 멍진윈도 강골파에 속했다.

"너희들은 중난하이 무도회에 간 적도 있고 마오주석의 거처에까지도 갔지 않았니, 지금은 왜 가지 않니?"

"우리가 과연 마오주석을 만날 수 있을까?" 그녀들은 의논 후에 아무튼 시도해 보기로 했다.

1967년 새해 첫날이 지나고 오래지 않아 멍진윈과 자주 중난하이 무도회에 갔던 네명의 소장 처녀들이 중난하이 서측의 푸여우가(府右街)에서 붉은색 높은 담장(红墙)을 보며 걷고 있었다. 홍위병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된 1966년 8월 이래 그녀들은 중난하이에 오지 못했었다.

그녀들은 중난하이 서문에 도착해서 매우 삼엄한 분위기에서 근무 중인 위병에게 자신들이 온 의도를 설명했다.

"우리는 마오 주석을 뵈려고 합니다."

"마오 주석을 뵙겠다고?" 위병들은 이 젊고 예쁜 아가씨들을 눈이 부신듯이 바라보면서 그녀들이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걸 신기해 했다.

"우리는 마오 주석께 중요한 상황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마오 주석도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못 믿겠으면 안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녀들의 말에 위병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내부 사무실에 전화로 이 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청했다. 그런데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내부에서 지시가 전달되었다. "주석께서 보자고 하신다."

경호원의 인솔하에 그녀들이 주석 접견실에 들어서자 예상 외로 마오 주석이 이미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오쩌둥의 신격화가 진행되고 있던 당시에 이런 일은 마치 천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았다.

이미 서문에서 접견실까지 들어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녀들은 지금의 마오 주석은 이전에 춘우재 무도회장에서 춤추고 격의없이 한담을 나누고 웃어 주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재삼 느끼고 있었다.

"주석, 안녕하세요"

"오랜만이구나, 너희들 모두 공군의 작은 동지들이네. 너는 작은 걸상, 너는 밭의 바가지, 너는 작은 멍(小孟), 나의 절반 동향, 맞지?"

"주석, 기억력 정말 좋네요, 주석의 말씀 모두 맞아요"

"우리는 우리 문공단 내의 문화대혁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찾아 왔어요" 한 소장 처녀가 대담하게 말문을 열었다.

"오,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날 찾아왔다. 좋아, 그럼 이야기 해 봐"

"우리 문공단내의 계급투쟁은 너무 복잡해요. 우리 단내에 홍기조반단(红旗造反团)이란 반동조직이 있는데 실제론 흑기조반단(黑旗造反团)입니다. 그 안에 적지 않은 지주, 자본가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 혁명파를 탄압했어요"

"그들은 홍기를 들고 홍기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들은 혁명파를 반혁명파로 매도합니다."

……

그녀들의 말은 계속 이어졌고 갈수록 흥분하고 격정적으로 되었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마오쩌둥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담배 한 개비 집어 들고 꺾어서 반으로 나눈 후 반을 담뱃대 입에 밀어 넣고 라이터를 집어들고 불을 붙이고 천천히 말했다.

"사물은 모두 하나에서 둘로 갈라지지 않나, 내가 보기에 자네들 단 안에 나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좋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마오쩌둥이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이어서 말했다.

"자네들 보기에도 그렇지 않나, 다 함께 단결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단 안에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를 보황파 개라고 욕합니다. 우리는 무산계급 혁명노선을 결사적으로 보위한다고 맹세합니다."

"내가 보기에 자네들 작은 동지들 혁명열정이 대단해. 자네들 공군의 일은 예췬(叶群) 동지를

찾아가서 의논하면 될 거야"

마오쩌둥이 말하면서 차탁자 위의 필통 안에서 빨간 연필을 한자루 꺼내서 한장의 백지 위에 다섯 사람의 이름을 쓰면서 한편으론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확인했다. 쓰고 나서 다시 사람 수를 세어 보고 다시 한번 읽고 그 이름 밑에 세 글자를 더 썼다.

"找叶群(예췬을 찾아가라)"

이렇게 쓰고 나서 연필을 놓았다. 자신의 이름도 쓰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이 메모 쪽지의 위력은 대단했다. 비서를 통해서 쪽지를 전달 받은 예췬은 마치 보물을 얻은 것 같아 보였다. 주석의 친필 아닌가? 이 지시를 수행한다는 구실로 공군을 장악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 같았다.

예췬은 징시빈관(京西宾馆) 내의 그다지 크지 않은 회의실에서 다섯 명의 공군 문공단 소장들을 만났다.

"여러분 혁명 소장들 모두 좌파 아닌가? 우리는 모두 하나의 혁명목표를 갖고 있다. 마오 주석을 보위하고 마오 주석의 혁명 노선을 보위하는 것이다. 공군의 우파시엔 사령관은 마오 주석 사령부 사람이다. 여러분은 그를 믿어야 한다. 린뱌오 부주석도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다. 린 부주석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문공단 내의 무산계급 혁명파에게 인사를 전한다."

"우리는 꼭 마오 주석의 혁명노선에 충실할 것이고 문화혁명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공단에 돌아 간 후에 혁명활동을 잘 하기 바란다. 여러분과 같은 좌파도 대다수 사람들과 단결하여 같이 혁명활동 하기 바란다. 누구이건 간에 마오쩌둥 사상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하여 조반해야 한다. 조반에는 일리가 있다."

"우리는 꼭 예주임의 지도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임의 격려에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직접 나를 찾아오면 된다. 돌아간 후에 누구에게도 여러분이 이곳에 왔었던 일을 이야기해선 안된다. 이것은 기밀보안사항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췬은 또한 미리 준비해 둔 선물인 마오쩌둥의 휘장(像章)을 한 사람 한사람씩에게 직접 건네 주었다. 마오 주석의 휘장을 받아 든 소장 처녀들은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을 표시했다. 그때부터 예췬의 영향력이 직접 공군정치문공단과 공군에 미치기 시작했다

다섯 명의 소장 처녀 중 멍진윈은 더욱 단순하고 순진했다. 문공단으로 돌아간 바로 그날 저녁에 멍진윈은 동료 소장들과 같이 예췬을 만나고 온 사실을 자기 오빠에게 말했다. 그녀의 오빠도 공군정치문공단의 무도대원이자 안무가였고, 홍기조반단(红旗造反团)에 참가하여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그들 남매는 비록 파는 달리 하고 있었지만 남매간의 정은 서로 유지하고 있었다.

멍진윈도 나름대로 다른 의도를 갖고 예췬을 만난 사실을 오빠에게 말해 준 것이었다. 즉, "봐라, 예췬 주임도 이렇게 우리를 지지한다. 그러니 오빠도 생각을 다시 잘 해 보고 우리 파로 와라. 계속 홍기조반단(红旗造反团)에 있으면 위험할 것이다."

멍진윈의 오빠는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홍기조반단의 동료를 찾아가 이 사실을 전했다. 물론 이 소식을 전달할 때는 모두 "절대 비밀로 하라"고 이야기 했지만 결국 이는 절대로 비밀로 유지될 수 없는 비밀이 되어 문공단 내의 아래 위, 안과 밖으로 빠르게 전파되었다.

며칠 후에 다섯 명의 소장 선배가 멍진윈을 불러 말했다.

"예 주임이 비밀로 하라고 했는 데 너는 왜 네 오빠에게 모든 걸 다 말했지?"

멍진윈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나 이후 멍진윈은 자기 파벌(강골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멍진윈을 포함한 다섯 명의 소장 처녀들이 예췬을 찾아 가기 전에 공군 총사령관 문공단의 주요 간부들에게 자주 중난하이에 춤추러 가는 여성 단원들 중 몇 명을 불러 모아 놓고 그녀들에게 그곳에서 보고 들은 마오쩌둥 관련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마오 주석이 무슨 말을 했는지, 좋아하는 노래, 연극이 무엇인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어떤 약을 먹는지, 생활습관은 어떤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등 기억 나는 건 모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마오 주석의 사상, 생활습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이고, 그래야 더욱 주석을 위해 더 좋은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더욱 잘 복무할 수 있고, 더욱 가깝게 모시고 혁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녀들은 마오 주석과 함께 지낸 경험과 듣고 본 이야기들을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전달하고 또 기록해서 제출했다. 이렇게 제출된 기록들은 우파시엔을 통해서 예췬과 린뱌오에게 보고되었다. 9.13 사건(1971년) 전에 한 소장 처녀가 마오쩌동의 숙소에서 놀던 중 틈을 봐서 마오가 먹는 약 중 두 알을 훔쳐서 린뱌오의 아들 린리궈(林立果)의 측근인 위신예(于新野)에게 전달했고, 이 약에 대한 화학실험 분석을 통해서 마오의 건강상태를 파악했는데, 이 일이 9.13 사건 직후에 밝혀져서 그 소장 처녀가 구속되었다.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소속된 강골파 내에서 불신임을 받게 된 멍진윈은 갈수록 홍기파인 오빠에게 의지하고 가까워지게 되었다. 1967년말 어느날, 멍진윈은 문공단 간부가 중난하이를 드나들던 자신과 동료 여성 단원들에게 마오주석의 거처에 대한 사정을 기록해서 보고하게 했던 일을 오빠에게 말했다. 멍진윈의 오빠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주석의 신상에 관한 일을 정탐한 이러한 행위는 매우 엄중한 문제임을 민감하게 알아차렸고 필히 상부와 마오 주석에게 이 일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시작했다. 그는 여동생의 말을 근거로 자료를 2부 작성해서 한부는 자신의 방안 침대밑 상자 안에 넣어 보관하고 다른 한부는 비밀리에 칭화대학(清华大学) 홍위병 두목인 콰이따푸(蒯大富)에게 전했다. 콰이따푸는 이 자료를 다시 장칭(江青)에게 전했다.

멍진윈의 오빠는 장칭에게 전달하면 그것이 곧 마오쩌둥에게 전달되는 것인 줄로 알았다. 그러나 이 자료는 그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예췬에게 전달되었다. 그로서는 꿈에도 생각치 못한 일이었다. 문화대혁명 초기에 장칭과 예췬은 일찌감치 서로 전략적으로 결탁하였고, 서로 "너의 원수는 바로 나의 원수"라는 말로 동맹을 유지하고 있던 시기였다. 장칭으로부터 이 자료를 전달 받은 예췬이 크게 놀라서 시급히 조치를 취했다.

얼마 지나지 않은 1968년 2월 어느 날 밤에 멍진윈의 오빠 집이 수색을 당했고 그 상자 안에서 고발자료를 찾아냈다. 그 다음 날 새벽에 멍진윈의 오빠는 군중대회에 끌려가서 위대한 영수 마오쩌둥에 반대했다는 죄명을 덮어쓰고 비판을 받았다. 또 그해 봄 어느날 저녁에 문공단 여성 간부가 멍진윈의 숙소로 와서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멍진윈, 사령관께서 너를 찾는다. 일단 단부로 가자"

멍진윈이 총단부 사무실에 들어서자 뜻밖에 그곳에 공군 보위부 보위간사가 있었고 그가 체포증을 제시하면서 말했다.

"너는 위대한 영수 마오 주석을 반대했으므로 체포한다. 빨리 서명해라."

멍진윈이 멍한 상태로 서 있자 멍진윈을 데리고 온 여성 간부가 멍진윈의 양쪽 귀와 뺨을 혹독하게 수차례 때리고 말했다.

"멍진윈, 너의 반동은 최악이다. 마오 주석에게 반대한 너의 죄는 만번 죽어 마땅하다."

잠시 후 멍진윈은 지프차에 실려 감옥으로 옮겨져 수감되었다.

감옥에서의 하루는 일년 같았다. 수개월이 지난 후에 그녀는 외부에서 노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감방에서 나와 밭에 나가 일하고 하늘과 태양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노동하는 생활이 감방 안에 있던 날보다 이 정도로 좋다는 걸 그때 알았다.

1년 후에 멍진윈은 시안(西安)으로 옮겨져 한 농장에서 일을 했고 다시 간쑤(甘肃) 란저우(兰州)로 옮겨져 군대 공장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 비로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다. 단, 오직 자신을 그날 숙소에서 끌고 갔던 문공단 혁명위원회의 두목 여성에게만 보낼 수 있었다. 편지에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상황과 조직과 영도에게 자신의 개조 현황을 보고해야 했다. 물론, 먼저 공장 책임자가 심사하고 그들이 대신 발송했다.

멍진윈 문제는 예췬 집단에 의해서 "1호 문제(一号问题)"로 분류되었기에 누구도 이에 대해 말하거나 물어보지 못했다. 만일 그랬다간 누구라도 그는 현행 반혁명분자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전달되었다. 당시 문공단 내에서만 체포된 단원이 7-8명이었고 예췬에 의해 군중대회에 끌려가 비판을 받은 사람은 30여명이나 되었다. 문공단 내의 모든 단원들이 멍진윈 문제는 소위 "1호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다.

수년간 가족과의 연락조차 끊긴 상태로 지내던 어느 날 멍진윈은 그 여 두목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비록 멍진윈이 엄중한 착오를 범했지만 당의 정책은 관대하므로, 개조 태도가 비교적 성실한 점을 고려해서 멍진윈에 대한 처벌 조치를 예정보다 일찍 해소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1971년 9월 13일, 린뱌오와 그의 부인 예췬, 그리고 아들 린리궈 등이 탄 비행기가 몽골 초원

에서 추락하면서 이들이 모두 몰살한 사건(9.13 사건)이 발생한 이후라서 이런 변화가 가능했다는 건 한참 후에야 알 수 있었다.

얼마 후 다시 검은색 승용차 한대가 와서 그녀를 태우고 베이징 근교인 줘현(涿县)으로 갔다. 비록 그녀의 문제를 관대하게 처리하고 "적과 아군의 모순"이 아닌 "인민내부의 모순"으로 처분을 했지만 그녀는 베이징에 들어 가거나 공군 문공단에 복귀할 수 없었다. 줘현에 며칠 간 머무는 기간 동안에 오빠부부만이 그녀를 보러오는 게 허용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베이징을 떠나서 고향인 후베이 우한(武汉)으로 갔다. 그녀의 군적(軍籍)도 회복되었고 우한군구(武汉军区)의 한 군대 병원의 간호원으로 직업도 안배 받았다. 1968년 봄부터 시작되었던 5년간의 감옥살이와 노동개조 생활이 이렇게 끝났다. 1973년 봄, 우한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나이 25세였다. 아름다운 용모를 타고난 멍진윈은 그녀의 정치문제에도 개의치 않고 청혼한 병원내의 정치공작업무 담당 간부 남성과 결혼도 하고 정상적 궤도의 일상생활을 회복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해가 안되는 문제들이 있었다.

"어떻게 나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된 것인가?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면서 왜 문공단에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건가? 왜 병원장은 내가 겪은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된다고 수차례 강조한 걸까?"

멍진윈은 자신의 당안(档案) 안에 아직도 자신을 모함하는 자료가 있을 거라고 결론을 내리고 베이징으로 공군 당위원회 담당자를 찾아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다.

베이징에서 멍진윈은 우연히 문공단 후배 샤오리(小丽)를 만났다. 샤오리는 당시에 멍진윈과 같이 심사 받은 후 자유를 회복했고 그후에 마오주석을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그 때에 샤오리가 멍진윈 이야기를 하자 마오는 멍을 기억하고 있었다.

"멍진윈이 베이징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이렇게 큰 베이징에 나의 절반 동향 한 사람 살 자리 없겠나!"

"공군 문공단에 돌아와서 우리와 같이 춤을 출 수도 있을까요?"

"그럼, 안 될 이유가 없잖아"

며칠 후 멍진윈을 감옥으로 보냈던 문공단의 여간부가 마오쩌둥을 찾아 왔을 때 마오쩌둥이 먼저 멍진윈을 거론했다.

"공군이 멍진윈을 잡아 가두고 있다고 들었다. 빨리 풀어줘라. 그녀는 린뱌오집단의 우파시엔(吴法宪)을 고발했다. 그게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이렇게 멍진윈의 문제가 급속하게 해결되었다.

주석의 부름을 받은 멍진윈의 친구 샤오리가 멍진윈에게 함께 주석을 만나러 가자고 했다.

"내가 주석을 만날 수 있을까?"

"나랑 같이 가보자"

오직 방향만 맞다면 한 걸음 시작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일 것이다. 1975년 5월, 늦은 봄날씨 치고는 갑자기 더워지기 시작한 어느 날, 중난하이의 붉은 담 바깥 푸여우가(府

右街) 우측의 보도를 군복차림으로 걷고 있는 두 명의 젊은 여성이 있었다. 한 사람은 공군 군복을 입고 있었고 전형적인 건강한 북방 미녀 용모를 지닌 샤오리이고 또 한사람은 육군 군복을 입었고 전형적인 남방 미녀의 아름다움을 구비한 멍진윈이었다. 그녀들은 중난하이 북문쪽으로 총총히 걸어갔다.

북문에 도착한 샤오리와 멍진윈이 근무 중인 위병을 통해 내부의 경위인원에게 "샤오리와 후베이에서 온 멍진윈이 주석을 뵙고 싶다"는 뜻을 전화로 전했다. 마오쩌둥의 생활비서 장위펑(张玉凤: 1944-)[6]이 경위로부터 쪽지를 전달 받은 후 마오에게 전달하자 마오가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샤오리와 멍진윈이 철문을 통과해 한참을 걸어 들어가 마오의 거실에 도착했다. 1967년 수감된 이후 8년만에 멍진윈이 마오쩌둥 앞으로 온 것이다.

흥분한 멍진윈이 마오쩌둥 앞으로 다가가 인사했다.

"주석, 저는 후베이에서 온 멍진윈입니다."

"기억하고 있다. 바로 나의 작은 절반 동향 아니냐?"

마오쩌둥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마오가 멍진윈의 손을 잡고 가볍게 더듬었고 또 그녀의 이마를 손으로 더듬었다. 당시 마오쩌둥은 심한 백내장을 앓고 있어서 한쪽 눈은 이미 실명되었고 나머지 한쪽 눈의 시력도 매우 안 좋았다. 이때 마오는 마치 눈앞의 멍진윈을 8년 전 그토록 순결하고 천진하고 명랑하던 소녀로 다시 보고 있는 듯 했다.

"주석, 저는 주석께 누명을 벗겨 달라고 청하러 찾아왔어요"

"너는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날 보자마자 누명 이야기부터 하는구나!"

"제가 어떻게 오고 싶지 않았겠어요. 올 수가 없었어요"

멍진윈은 자기가 겪은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학습반 운영부터 감옥, 노동개조, 고향으로 돌아가 간호사 일을 하게 된 경위 모두를 이야기했다.

멍진윈의 손을 잡은 채 진지하게 듣고 있던 마오쩌둥의 눈이 촉촉해졌다.

"이렇게 단순하고 천진, 솔직한 이 아이가 "반혁명분자"가 되었고, 감옥 안에서 3년이나 갇혀 있었다니, 아직도 어리고 연약한 마음인데 그토록 심한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마오쩌둥은 고집이 셌지만 정도 많은 사람이었다. 그가 일단 결정하면 수천 수만 명의 생명이 희생되는 문제도 바꾸기 어려웠고 완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또 그렇듯이 일단 누군가에게 동정을 하게 되면 그 또한 완강하게 고수했다.

"더 말할 필요 없다. 네가 왔으니 무슨 일이건 처리할 수 있다. 너는 이곳에 남아서 내 곁에서 일해라"

마오의 갑작스런 말을 들은 멍진윈은 놀라면서 반신반의했다. "이곳에 남아서 내 곁에서 일하라"는 의미가 뭔가? 잠시 후에 멍은 이렇게 말했다.

6) 장위펑(张玉凤: 1944-), 헤이룽장(黑龙江) 무단장(牡丹江) 출신. 1960년대 무단장 철로국식당열차 복무원, 방송원으로 근무하다가 마오쩌둥 전용열차 복무원으로 근무했고, 1970년 7월 이후 중난하이에서 마오의 기요비서(机要秘书) 겸 생활비서로 근무를 시작했고 마오의 절대적 신임을 받으면서 1976년 9월 마오가 죽을 때까지 신변을 지켰다.

"저는 주석께 누명을 벗겨 달라고 청하러 왔어요, 저의 당안(档案) 안에 분명히 흑자료가 있을 겁니다."

"내 곁에서 일하면 누명이건 흑자료이건 그것으로 해소되는 것이다. 너는 나의 딸이고 또한 나의 친구다."

이렇게 되어 1975년 5월 24일, 멍진윈이 중난하이에 남아 다음 해(1976년) 9월 9일에 마오쩌동이 죽을 때까지 489일간 그의 곁에서 간호사 겸 생활비서로 일했다.

<사진 1> 멍진윈(왼쪽 첫번째)과 장위펑(네번째)

멍진윈은 마오가 말년에 국민당 군에 희생된 첫째 아내 양카이후이(杨开慧: 1901-1930)에 대한 회념과 장칭(江青: 1914-1991)에 대한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하루는 멍진윈이 마오쩌동에게 "주석, 저와 장위펑(张玉凤, 1944-) 언니랑 이발하러 가려고 하는데 주석이 보기에 어떤 모습이 보기 좋은가요?"고 묻자,

"짧게, 단발모양이 보기 좋아"

멍진윈과 장위펑이 베이징호텔(北京饭店) 이발실에 간 후 당시 유행하기 시작한 파마형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두 사람 모두 생각을 바꾸고 파마를 하고 왔다. 마오가 두 사람의 파마형 머리를 보고 못마땅한 듯이 말했다.

"너희는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장위펑의 말에 의하면 마오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자신이 그런 단발머리 모양을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멍진윈은 아마도 사진으로 본 양카이후이(杨开慧) 머리 모양이 단발머리인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카이후이에 대한 마오의 회념은 늙어가면서 과거에 대한 추억과 회상에 잠기는 경향과도 관계가 있었겠지만, 갈수록 노골적으로 천박하게 행동하는 장칭에 대한 반감과 염증이 심해지는 데에도 기인했다. 이 당시에 마오는 장칭이 만나고 싶다고 요청해도 만나지 않았다.

마오쩌둥의 방에 자유롭게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장위펑과 멍진윈 두 사람뿐이었다. 그가 누구이건 용무가 무엇이건 간에 마오쩌둥의 자녀와 친척, 친구들도 모두 경위병을 통해서 장위펑이나 멍진윈을 통해서 마오에게 보고한 후에 마오가 만나는 데 동의한다는 통보를 받아야만 마오의 방에 들어 갈 수 있었다. 따라서 마오의 처인 장칭조차도 마오쩌둥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마오는 매번 장칭의 면담 신청을 거절했다. 그럴수록 장칭은 애를 태우다 고안해 낸 방법이 장위펑을 만나러 왔다 하고 들어와서 틈을 봐서 마오의 방에 들어왔다. 따라서 장칭이 멍진윈

이나 장위펑에게 대하는 태도는 더 없이 부드러웠고 각종 선물 공세도 빈번했다. 그러나 장칭이 그런 방법으로 마오의 곁에 다가가도 마오는 냉정했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무시했다. 장칭을 보는 순간 눈을 감고 자는 척 하거나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못 들은 척 하며 한마디 대꾸도 해주지 않았다.

마오의 기분이 좋아 보이는 어느 날 멍진윈이 물었다.

"주석은 어째서 늘 부인을 안 보겠다고 하나요, 부인이 불쌍해요"

그러자 마오가 이렇게 대답했다.

"너는 그 여자가 불쌍한 모습만 보고 천박하고 악독한 모습들을 아직 못 봤나 보구나"

마오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이 있다고 한 후에도 그것이 장칭이 보내 온 것이라 말하면 다시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았고, 장위펑이나 멍진윈이 장칭이 선물로 준 옷을 입고 있을 때 "그 옷이 보기 좋다"고 칭찬했다가도 장칭이 선물한 옷이라고 말해 주면 돌연 안색이 변하고 못 마땅한 표정을 짓고 보기 싫으니 벗어 버리고 다시는 그 여자가 주는 것을 받지 말라고 했다.

하루는 마오가 기분이 좋아져서 멍진윈과 이런저런 한담을 나누다가, 문득 멍진윈에게 또는 스스로에게 묻듯이 말했다.

"만일 내가 장칭과 이혼한다는 뉴스가 발표되면 인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순간 멍해진 멍진윈이 잠시 아무 말 안하고 있자 마오가 다시 말했다.

"대답할 필요 없다. 너에게 물어볼 일이 아니지……"

한편, 이 시기에 4인방이 집요하게 덩샤오핑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글을 매체에 발표하거나 마오에게 보고했으나 덩샤오핑에 대한 마오의 신임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오는 덩샤오핑을 "솜 속에 침을 감추고 있고(绵里藏针), 부드러움과 강함을 겸비했다(有软有硬)"고 평했다.

1975년 10월 중순 어느날, 멍진윈이 마오에게 신문을 읽어주고 있었다. 글의 내용은 "경험주의 반대"니 "반혁명진지를 공격하자", "자산계급의 법권을 제한하자" 등의 용어들이 빈번하게 나오는 글로 4인방이 저우언라이와 덩샤오핑을 비판, 공격하는 내용이었다.

듣고 있는 마오는 별 흥미없다는 투로 가끔 한마디씩 했다.

"내가 보기엔 경험주의를 비판하는 자들 자신이 바로 경험주의이고, 자산계급의 법권을 제한하자고 외치는 자들이 자기의 법권은 스스로 확대하고 있지"

1975년 11월 초 어느 날 오후에 마오가 잠이 깨자 멍진윈이 이 날도 신문을 읽어주었다. 마오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듣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이 누워있다가 손짓으로 멍진윈을 불렀다. 그녀가 다가가자 마오가 "그런 재미없는 문장 읽기는 그만하고 의사로서의 책임을 완수해 봐. 내 머리 안마 좀 해줘. 머리가 부풀고 팽팽해 지는 느낌이야"

멍진윈이 손으로 마오의 이마 부위에서 시작해서 콧등쪽을 천천히 안마해 주면서 "이렇게 안마하면 되나요"

"좋아, 너는 바로 안마의사로군"

"정말 오랜만에 주석의 칭찬을 듣네요"

멍진윈이 안마하면서 방금 전 읽던 신문에 게재된 문장 내용에 대해 말했다.

"요즈음 신문에 나는 문장은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모두 덩샤오핑을 비판하는 글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덩샤오핑 동지는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이 말에 마오의 반응이 매우 빨랐다.

"덩샤오핑, 응, 능력있지"

"그럼요, 우리 친척들이 하는 말이 과학원 정돈한 후에 성과가 매우 많대요. 모두들 인정한대요"

"그래, 너에게 임무를 하나 부여하마. 이후에 집에 가면 외부의 상황을 많이 들어봐라. 어떤 상황이건 모두 들어봐라. 바깥 소식이 좋은 소식이 많지. 이곳에서 신문이나 문장만 봐서는 안 되"

그러나 1975년 9월, 마오쩌둥은 조카(동생 마오쩌민의 아들)이자 장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던 마오위안신(毛远新)이 수 차례 덩샤오핑을 모함하고 공격하는 보고를 하고 특히 덩이 문화대혁명에 반대하고 있는 게 확실해 보인다는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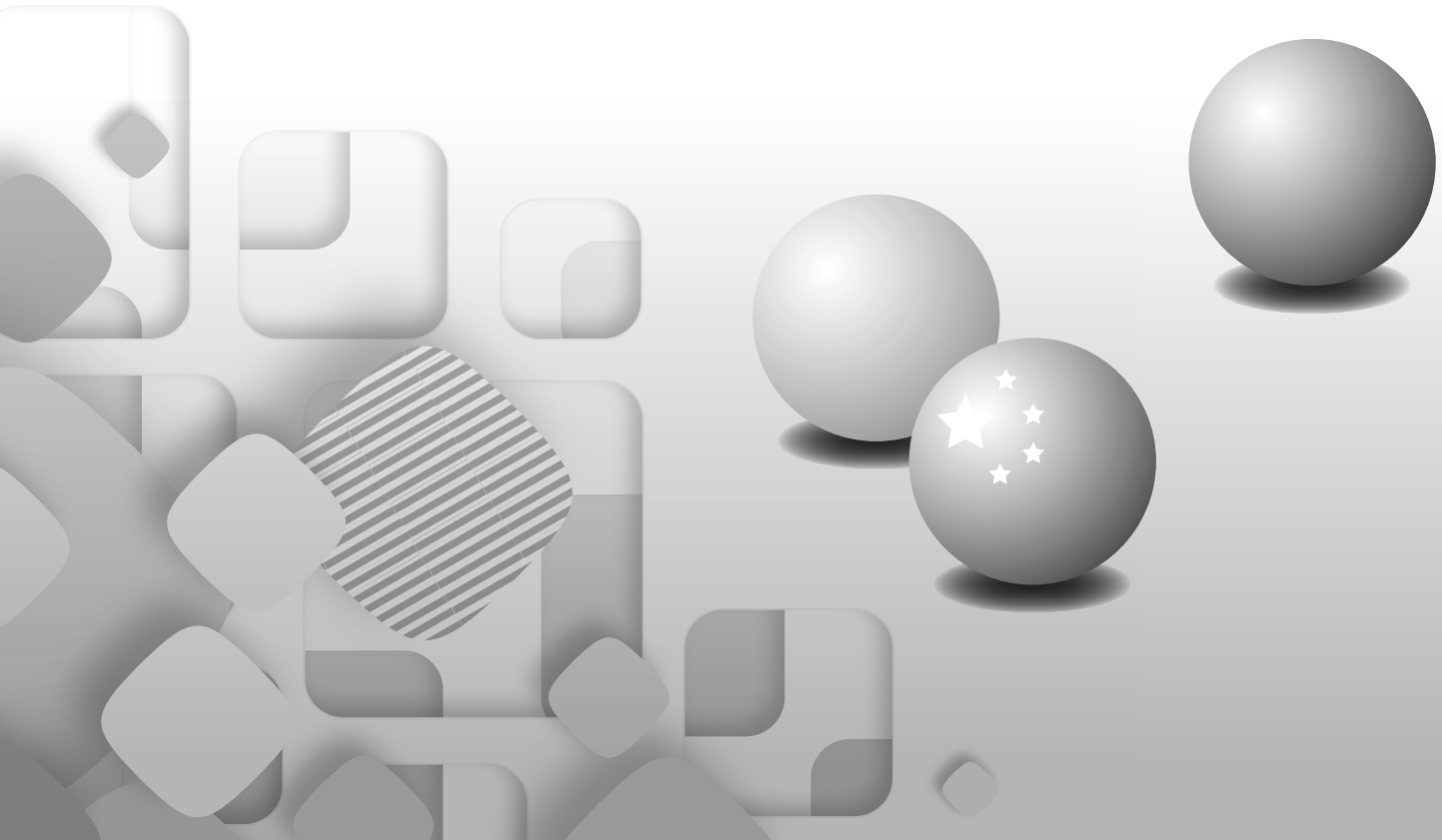
인용 및 참고문헌

谢春涛, 이정림역. 2012,「중국공산당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한얼미디어
郭金荣, 2009,「走进毛泽东的最后岁月」, 中共党史出版社
张涛之,1998,『中华人民共和国演义(上、中、下卷)』, 作家出版社
郑博·肖思科,2005,『黄克诚大將』, 解放軍文藝出版社.

충남 속의 중국

7.
청나라와 일본 간 최초의 격전, 천안 성환전투(成歡戰鬪)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충남도 최북단에 위치한 성환읍

성환읍은 충남도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아산, 북쪽으로는 평택과 접경한 도계를 이루고 있으며 57.06㎢의 면적에 11,798가구, 27,929명이 거주하고 있다. 성환읍은 천안에서도 지세가 평탄하여 과수와 낙농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성환의 명물 신고배는 맛과 육질이 전국 제일로 일찍부터 수출되었고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성환종축장)[1]와 천안낙농협동조합의 기술지도로 낙농업도 크게 발전된 지역이다.[2] 성환읍의 동쪽 끝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중앙으로는 철도와 국도1호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수도권 배후 지역으로써 교통이 양호한 편이다.

성환읍은 조선시대 찰방(察訪)이 설치될 만큼 번창한 도시였다.[3] 이곳은 일신, 경천, 단평, 유구, 연기 등 10여 개의 역참을 관장하던 곳이다. 하지만 이 찰방은 1895년에 폐지됐다. 이후 이 지역은 경부선 철도의 성환역이 개통되면서 이 일대가 농산물의 집산지로 발전했고 성환 배, 성환 개구리참외 등 지역 특산품도 유명했다.

<그림 1> 천안시 성환읍의 위치도

자료: 네이버 지도

지금의 성환읍은 천안시에서도 외곽에 위치하고 종축장 등이 자리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졌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농업과 교통 여건이 좋아 한때 번창한 지역이었다. 그러한 성환읍이 청일전쟁 시기인 1894년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의 격전지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1) 성환종축장은 일제가 소와 말의 우량종을 번식시키기 위해 세운 목장이었으나 이후 정부가 가축개량을 위한 시험장으로 발전시킨 곳임. 청일전쟁 당시 성환전투의 핵심 격전지이기도 함.
2) 천안시청 홈페이지(서북구청_성환읍)(검색일: 2019. 02.01)
3)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지명유래집 충청편 지명_성환읍

많지 않다. 지금도 성환읍에는 청망이들, 망근다리, 비석산 등 청일전쟁과 관련한 지명이 남아 있을 정도로 전쟁의 상흔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1894년 청일전쟁 시기 일본군의 공격으로 시작된 성환전투

성환전투(成歡戰鬪)는 청일전쟁 초기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이 풍도 해전에 이어 육지에서 벌인 첫 번째 전투이다. 이 전투는 1894년 7월 28일 일본군이 천안 외곽의 성환읍에 주둔한 청군을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성환전투의 배경은 이렇다. 1884년 갑신정변으로 청나라와 일본은 톈진조약을 맺어 양국이 조선에 파병을 하게 되면 상대국에게 통보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1894년 전라도를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조정은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나라는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자 일본은 톈진조약을 빌미로 군대를 파견하였다. 조선 침략을 호시탐탐 노리던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혼란을 틈타 재빠르게 조선으로 들어온 것이다.

청나라군대와 일본군이 조선으로 들어오자 정부는 동학 농민군과 전주 화약(和約)을 맺어 청일 양국 군대가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 침략의 야욕이 있었던 일본은 성환에 주둔하고 있었던 청나라 군대에 선제공격을 하면서 성환전투가 시작됐다.

<그림 2> 성환전투 당시의 일본군

자료: https://blog.naver.com/ohcw2002dyd/221335182769

<그림 3> 패전과 패퇴를 거듭한 청군 수뇌부

성환에서 패한 후 평양에서 궤멸된 청군(淸軍)

성환전투 초기 청나라 군대는 섭지초(葉志超)의 지휘 아래 3천여 명의 병력이 아산만에 주둔하고 있었다. 청군은 두 개 부대로 편성하여 한 부대는 지금의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인 성환 지역에 방어진을 구축하였고, 다른 한 부대는 공주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일본군도 성환 지

역으로 남하하고 있었다.

성환 지역의 방어 부대는 섭사성(聶士成)이 지휘하였다. 섭사성은 지금의 성환역 동북쪽에 있는 월봉산 일대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일본군은 성환역에서 멀지 않은 평택의 소사평에 도착해 7월 28일 새벽에 청군을 공격했다. 청나라 군대는 일본군이 선진화된 화력을 바탕으로 4시간 만에 성환읍을 점령하자 당황한 나머지 아산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당시 전투력을 보면, 일본군은 보병 3,000명, 기병 47명이었고 청군은 보병 3,400명이었다. 사상자는 일본군이 820명, 청군이 500명이었다. 아산으로 퇴각한 섭사성의 청군은 공주의 섭지초 군대와 합류하여 청주를 거쳐 평양으로 달아났다.

성환전투에서 전체 병력의 1/7을 잃은 청군은 평양으로 후퇴하여 일본군과의 일전을 준비했다. 그리고 8월 1일, 양국은 공식적으로 선전 포고를 하면서 청일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평양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청군은 일본군에 궤멸되면서 청일전쟁은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성환과 아산에 청일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우기도

지금의 성환읍 성신초등학교(구 성환읍사무소)에는 비석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이곳에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일본군의 청일전쟁 승전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승전비는 일제가 1894년 8월 성환 지역에서 있었던 청일전쟁에서의 승리와 일본군 첫 장교 전사자인 마쓰자끼(松崎) 대위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일본인들은 이곳에 비를 세우고 이 일대를 성환공원으로 조성해 성역화했다.

<그림 4> 청일전쟁 승전비
(성환읍 성환리 소재, 해방 후 파괴됨).

<그림 5> 일본군 충혼비
(성환읍 안궁리 소재, 해방 후 파괴됨).

자료: 중앙일보(2010. 10. 1), 천안군세일반(1933)

이 승전비는 1911년 초대 조선총독이었던 테라우찌 마사다께(寺內定毅) 등이 돈을 내 이듬해인 10월에 준공했다고 한다. 9m가 넘는 이 거대한 비의 휘호는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 사령관이었던 오시마가 썼다고 한다. 일제는 이 승전비를 만들기 위해 마을의 야트막한 산을 깎아 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승전비를 만들고 현재의 성신초등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참배하도록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방 후 6.25전쟁 때 군인들은 포를 쏴서 이 승전비를 깨버렸다고 전한다.[4] 마찬가지로 일제는 성환읍 안궁리에 일본군 충혼비를 건립했으나 이 역시 해방 후에 파괴되어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지명에 남아있는 청일전쟁의 상흔

성환전투는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반도에서 벌인 대규모 전투였다. 혹자는 청일전쟁이 아니라 청나라와 일제가 조선에 대한 패권을 놓고 벌인 전쟁이기 때문에 '조선전쟁'이 더 정확한 명칭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명칭이야 어찌됐든 성환전투는 이 일대에서는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 명칭이 남아있다.

대표적인 명칭이 '청망이들'(청망평)이다. 청망이들은 성환읍 안궁리 일대의 넓은 평야지대를 일컫는 말이다. 청망이들에서 청망은 청나라가 망했다는 뜻의 '淸亡'으로 1894년 6월(고종 31년), 청국의 섭지초가 월봉산에 진을 치고 새벽밥을 먹다가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 이곳에서 크게 패해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안성천을 건너던 옛 다리(현 안성교)를 이 지역 사람들은 '망근다리'라고 부르는데 일부에선 '망군(亡軍)다리'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여긴다. 물론 여기에서 망군은 청나라 군대를 뜻한다.

성환전투 초기에는 청군이 일본군을 크게 격퇴시켜 붙여진 몰왜보라는 이름도 있다. 청군은 아산만으로 상륙하여 성환의 안성천을 사이에 두고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청군은 안성천의

<그림 6> 청망이들이 있는 현재 성환읍 안궁리

<그림 7> 몰왜보와 망근다리가 소재한 안성천
(천안과 평택 사이)

자료: 네이버지도, 다음블로그(행복한 랩소디)

4) 조한필 기자의 블로그, 천안의 민담

군두보를 더욱 높이 쌓아 많은 물을 가두었다가 일본군이 군두보 아래 모래벌판에서 쉬고 있을 때 보를 터뜨려 장수 마쓰자키가 이끄는 일본군을 한꺼번에 몰살시켰다. 그 뒤로 사람들은 일본을 몰살시킨 보라고 해서 군두보를 몰왜보(沒倭洑)라고 불렀다. 암튼 청망이들, 망군다리, 몰왜보라는 이름은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임의대로 전쟁을 벌이다 패망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5)]

성환전투로 인해 인근 지역 피해 막심[6)]

청나라와 일본 군대의 싸움터가 되어버린 성환과 인근 아산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것처럼 폐허가 되어버렸다. 주민의 피해도 극심했다. 청나라와 일본은 서로 자신들은 조선을 독립 시켜주기 위해 참전했다는 명분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위한 사전 준비 없이 조선에 들어와 식량, 사람, 우마 등 군수물자 대부분을 현지에서 조달했다. 두 나라가 조선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을 했으니 조선이 당연히 전투를 위한 물자를 조달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래서 아산과 천안 일대에서 강제로 주민들을 동원했고 소와 돼지를 약탈했다. 특히 일본군이 아산에서 40여 일 주둔하는 동안 피해가 막심했다. 일본군이 현재 옛 아산감영이 있던 영인면 아산리에 입성했을 때 주민들은 모두 피난을 떠나 이 일대가 텅 비었다고 한다.

청나라의 경우, 조선정부가 나서서 인부와 물자를 징발해 청나라를 도왔다. 조선정부는 둔포 포구의 배 20척을 징발하고 각 집마다 인부로 1명씩 총 80명을 모집하고 식량을 구하려 여각, 부호들에게 돈을 차출하기도 했다. 당시 조선은 남의 나라들에 자신의 국토를 전쟁터로 내주고 양민들이 약탈당하는 걸 눈뜨고 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청일 양군의 각축전에 하소연 할 곳이 없었던 백성들은 "아산이 깨지나 평택이 무너지나"라며 한탄을 했다고 한다.

성환전투, 지역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준비해야

성환전투는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청나라와 일본이 처음으로 육지에서 맞붙은 전투였다. 이 전투로 인해 성환과 아산 일대 주민의 피해는 막심했다. 선량한 주민들이 전쟁에 차출되고 가축과 식량이 약탈되어 지역 주민들은 희생되거나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했다. 성환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이후 성환과 아산 일대에 청일전쟁 기념비와 충혼비를 세우는 등 많은 흔적을 남기기도 했다. 성환과 아산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아픈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역사를 현재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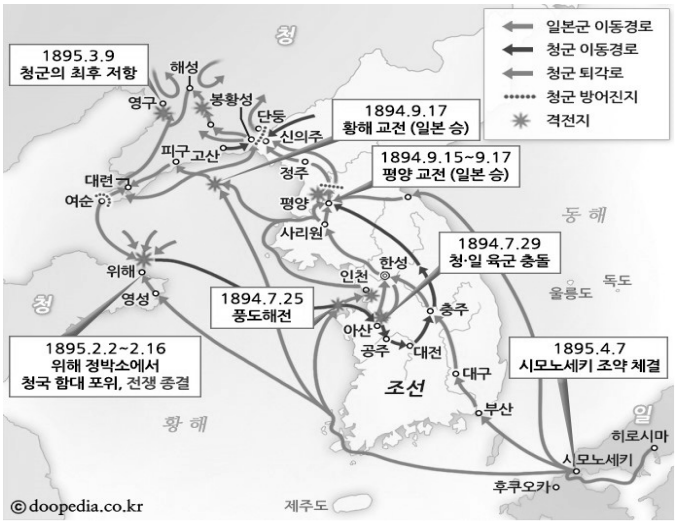
성환전투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싸움이라는 역사적 큰 흐름 속에서 보더라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다. 거대한 청나라가 근대 일본에 의해 몰락하는 결정적 전투이기 때문이다.

5)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_「몰왜보와 청망이들」
6) 중앙일보(2010. 10. 1). "유적·유물로 본 내고장역사 ⑥ 아산·성환이 겪은 청일전쟁" 참고 정리

1894년 7월 25일 아산만 앞 풍도해전, 7월 29일 성환전투, 9월 15~17일 평양 교전에서 청군은 일본군에 패하면서 거대 청나라는 서서히 몰락해갔다.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대만을 차지했고 점차 조선을 강제 침탈해 점유했다. 이후 만주 등 중국 대륙을 침략했고 나아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는 동안 동아시아 전체는 전쟁의 늪에 빠졌고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희생됐다. 그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청나라의 몰락과 일본 제국주의의 부상을 야기한 청일전쟁의 원인은 우리 내부에 있었다. 즉, 구한말 가렴주구와 학정을 일삼았던 전라도 고부지역의 조병갑이라는 탐관오리와 이에 맞섰던 농민들 간의 대결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병갑은 1892년 고부군수로 부임한 후 만석보를 만들어 농민들로부터 수세 등 온갖 명목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이에 분노한 농민들은 관아를 습격하면서 동학농민전쟁은 시작되었다. 부패하고 무능한 조선정부는 농민봉기에 당황해 청나라를 끌어들였고 이에 질세라 일본은 이를 핑계로 침략해 들어왔다.

결국 동학농민전쟁이 발단이 되어 시작된 청일전쟁으로 인해 동아시아는 오랫 동안 전쟁의 참화와 혼란을 겪었다. 백성을 아끼고 보살피지 않고 가신과 친족의 안위만을 위했던 무능한 조선정부를 탓하기에는 역사적 고통이 너무 컸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3.1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다시 한 번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통해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남북화해와 통일시대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림 8> 청일전쟁 전개도

자료: 두산백과(2019.02.07)

참고자료

네이버 지식백과_「성환전투」
두산백과_「청일전쟁」
정근식(2014). 중국갑오전쟁박물관에서 다시 보는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 1894년 동북아시아전쟁의 개념화를 위하여. 아시아리뷰 제4권 제1호(통권 7호), 39~71.
중앙일보(2010. 10. 1). 유적·유물로 본 내 고장 역사 ⑥ 아산·성환이 겪은 청일전쟁.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_「몰왜보와 청망이들」

발간 목록

■ 중국동향과 진단 발간목록(2015.6~2019.2)

호수	발간월	주제
제1호	2015년 6월	육상 및 해상 신실크로드(一帶一路)건설과 중국의 국토발전축
제2호	2015년 7월	신상태 시대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제3호	2015년 8 · 9월	징진지 지구 일체화 정책 추진 동향과 충남의 시사점(합본호)
제4호	2015년 10월	중국 삼농문제의 연원과 관련정책 동향
제5호	2015년 11 · 12월	산둥성 남색경제 발전전략(합본호)
제6호	2016년 1 · 2월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
제7호	2016년 3 · 4월	한중 FTA 발효가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제8호	2016년 5 · 6월	방한 '요우커' 충남 유치전략
제9호	2016년 7 · 8월	중국 구이저우성의 현황과 충남의 대응전략
제10호	2016년 9 · 10월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제11호	2016년 11 · 12월	중국내 한중산업단지의 설치 동향
제12호	2017년 3 · 4월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준비 현황과 과제
제13호	2017년 5 · 6월	중국 대기오염의 현황과 시사점
제14호	2017년 7 · 8월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시장 동향과 시사점
제15호	2017년 9 · 10월	생태문명 전략과 농촌 개발: 중국 현대 농업정책의 해석
제16호	2017년 11 · 12월	중국 수산업의 최근 발전 동향
제17호	2018년 1 · 2월	중국 전기자동차 발전 현황과 시사점
제18호	2018년 3 · 4월	2018년 중국 양회(兩會)의 주요 이슈 및 충남에 대한 시사점
제19호	2018년 5 · 6월	충남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변화와 시사점 : 1차 산업
제20호	2018년 7·8월	충남 시·군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변화와 시사점 : 1차 산업
제21호	2018년 9 · 10월	중국 지방정부의 온라인 정무서비스 활용 현황 및 시사점
제22호	2018년 11 · 12월	시도별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활용현황 분석
제23호	2019년 1 · 2월	중국 동북3성 경제·산업 현황분석 및 시사점

※ 발간된 내용은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